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사진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책임집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작가분이 그리는 감동있는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Norway Lofoten

노르웨이 로포텐

출사일정 : February-March 2025



Sumba Island, Indonesia

인도네시아 숨바섬

출사일정 : February 2025

Czech South Moravia

체코 남모라비아

출사일정 : April 2025



Italian Dolomites

이탈리아 돌로미티

출사일정 : June 2025



PHOTOTOUR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한국의 사진여행

한국의 사진

VOL. 532

한국의 사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11 2024
November

가장으로, 주부로, 아빠로, 엄마로, 친구로
참 많은 것을 업고 사는 당신
이제 당신이 업히세요

**신협이 당신께
튼튼한 등이 되어 드릴게요**



Contents

November 2024 Vol.532

Cover Story



박영숙(대구지회)
- 시간적 미학

- 03 **Headnote**
변화의 완성을 위한 노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 05 **특집**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16 **특집**
'2024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서 한중 사진 교류
본회, 中 예술사진학회와 '업무협약'
- 40 **전시광고**
없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우주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를 만나다 - 정연수(수원)
- 44 **전시광고**
지혜롭고 강인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년의 초상 - 정민순(의정부)
- 48 **전시광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불교의 인연이 계속되길...
천년의 숨결 - 송진용(화성)
- 52 **전시광고**
내 사는 그곳서 기록한 '바다 숲 나무 꽃'
자연에 마음을 엮다 - 김정희(울진)
- 56 **전시광고**
바람따라 흐르는 희망의 메신저
생명의 씨 - 김애란(안양)
- 60 **특집**
KYOTOGRAPHIE 2024-4
- 66 **지상전**
흑백 사진에 담은 그 시절 삶의 현장
장날 - 정정희(부산)



40



52



60



Headnote

변화의 완성을 위한 노력

지난 수년간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협회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사진 단체로서의 굳건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는 한국을 대표하여 중국예술사진학회와의 MOU를 체결하며, 국제적인 사진 교류의 장을 더욱 넓혀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대한민국사진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제는 매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행사로 발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사진축전을 더욱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사진 축제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12월 4일에 열리는 올해 대회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협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의 역량이 모여야 하며, 집행부의 임직원들은 그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씩 바뀌었던 시간이 쌓인 지금, 우리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완성을 위해 회원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한다면 협회는 분명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사진 예술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1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Contents

November 2024 Vol.532



- 70 **Photo Essay 01**
무심코 스치는 풍광 잡아낸 '순간포착'
FOSSIL OF PERSPECTIVE - 정명오
- 74 **Photo Essay 02**
AI와 함께 추적한 나의 뿌리, 나의 출발점
기억의 전이 - 윤은숙(경기광주)
- 78 **Review & Preview**
강은 흐르고 기억은 교차한다
제 2회 칠곡국제트렌스미디어축제 - 김재훈

사진강좌

- 84 **Travel destination**
관심은 '정권유지' 부강한 나라는 '뒷전'
백성은 가련해, 독재는 다 그래 - 최승언
- 88 **Photo Theory**
반 고흐 머물던 카페도... 도심 곳곳에 전시장
2024 아를국제사진제 - 조주은

협회소식

- 9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회원동정, 분과소식

업계소식

- 103 **Gallery**
김애란 사진전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ID : kask / PW : kask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ask / PW : kask
펴낸날 | 2024년 1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욱,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5기 모집

(2025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5년 3월 ~ 7월 예정 (단, 본 협회 긴급 행사 시 변경될 수 있음)
2학기 개강 2025년 8월 ~ 12월 예정
졸업전시회 2025년 12월 예정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5년 3월 개강 이전까지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4기 강의장소 안내

이론수업

1.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실습수업

1. 추후 공지예정
2.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5기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5th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4 PASK KOREA Photo Festa

12.04 Wed - 12.08 Sun 2024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2024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4 PASK KOREA Photo Festa



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주최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진예술 축제인 제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2024 PASK KOREA PHOTO FESTA)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 많은 서울 시민에게 사진 예술의 즐거움을 알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예술로서 사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시민들에게 사진을 통해 문화예술이 일상적인 경험으로 자리잡는 기회가 되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표방한다. 전시 기간은 2024년 12월 4일(수)부터 12월 8일(일)까지 양재 aT 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마지막 날은 13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전시예술로서 사진예술의 매력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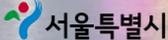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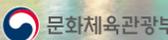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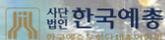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 8일(일)**

장 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개전식 **2024년 12월 4일(수) 오후 3시**

주 최  **대한민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주 관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후 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총연합회**
대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in aT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 개막식 프로그램 & 주요 초청 외빈

전시 개막식 |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5:00 ~ 16:00**

장 소 **양재 aT센터 1F 제1전시장**

주요내용 **개회사, 축사, 전시장 관람, 축하공연**

진행순서

일 정	내 용	비 고
14:40~15:00	20' 식전공연	
15:00~15:05	5' 오프닝 (사회자 인사 및 행사시작 안내) 및 내빈소개	사회자
15:05~15:10	5' 내빈소개	사회자
15:10~15:25	15' 개회사(이사장), 축사(서울시장님 외)	
15:25~15:30	5' 테이프커팅식 및 기념사진 촬영	주요 내,외빈
15:30~15:40	10' 전시장 관람	주요 내,외빈

주요 초청 외빈 (예정) |

- 공 직 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수 국회 문체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 조은희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외

- 문 화 예 술 계

조강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예총 광역시도 연합회장, 중국예술사진학회 왕첸지 부주석, 심효강 주한중국문화원장 외

- 기 타

김윤식 신협 중앙회장, 성대석 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최재영 바른언론인협회 회장,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 각 대학 사진학과 학과장 및 교수 외

개전식에는 전국 약 1천명 정도 사진작가 및 관람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막식 행사 취재 언론사가 현장 참석하여 보도 예정

2024 서울포토펙스티벌 in aT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행사 주요 프로그램

주요행사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기간 : 2024년 12월 04일(수) ~ 12월 08일(일)
- 장소 :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부대행사 | 2024 서울시 일상사진 공모전, 제2회 한국 청소년 사진제

- 기간 : 2024년 09월 23일(월) ~ 12월 8일(일)
- 수상작은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에서 전시 진행

주요내용 |

- 국내 유일의 사진장르 대형 전시인 대한민국사진축전 진행
- 축전 전시장에서 2024 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기금 수여식 진행

특별전 I '한 강'

- 과거와 현재의 한강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60여점)
- 한강의 변화를 통해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보임

특별전 II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

-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상사진공모전과 청소년 사진제 수상작 전시
- 시민들과 학생들이 사진예술의 창작자로 참여하는 기회
- 12월 8일(일) 시상식 이후 전시 액자는 본인에게 증정

특별전 III 중국작가 초대전 - 생명, 영원

- 중국사진예술학회 소속 작가 5인의 전시
-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 및 사진예술 발전의 이정표

특별전 IV 사진학과 교류전

- 사진산업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진 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시
- 4개 대학을 선정하여 교류전을 진행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진행

특별전 V 개인전 참여작가 부스(120여명)

- 국내 유일의 사진예술 전문 전시
- 중견작가 및 신진작가의 창작 작품
-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구성되는 사진 예술

전시장 이벤트

- 스마트폰 사진 무료 출력 서비스
-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전문 작가의 사진 촬영
-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 중 100명을 선정하여 작품집 증정
- 스마트폰 촬영법 강의
- 사진 예술 애호가를 위한 촬영회

2024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2023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대상 ©박현진 반포 한강공원의 노을

공모주제 | '서울'에서의 일상

- '서울' 안에서 촬영한 평범한 하루의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
-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공모와 전시를 통해 창작 활동의 경험 제공

참여대상 : 제한없음(무료)

심사방식 : 개별 채점제

- 접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사진 파일 업로드
- 심사는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온라인으로 개별 채점 진행
-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10점, 입선 50점 선정 예정

전시 및 시상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 특별 부스에 수상작 전시
-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 진행 후 전시 액자는 본인에게 증정

제2회 한국 청소년사진제



제1회 청소년사진제 대상 ©김윤서 횡단보도

공모주제 | 자유작

- 친근한 예술 장르인 사진 창작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 활동 확대
- 국내 최대 사진예술 전시에서 수상작 전시를 통해 창작 활동의 경험 제공

참여대상 : 초·중·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무료)

심사방식 : 개별 채점제

- 초등부 / 중고등부로 구분하여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 심사는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온라인으로 개별 채점 진행
-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특선 10점, 입선 50점 선정 예정

전시 및 시상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 특별 부스에 수상작 전시
- 시상식은 전시 마지막 날 진행 후 전시 액자는 본인에게 증정

2024 서울포토편스티벌 in aT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행사 주최 단체소개

단체명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표자: 유수찬)			
단체현황	등록사항	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1963년 1월 30일)		
		설립일자	1961년 12월 17일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 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으로 한다. 			
단체현황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간 한국사진 발행 (24년 9월 현재 통권 530호 발행, 월 1만 2천 부) 대한민국사진대전 진행 (이전 국전의 민간부문, 문체부 후원 대회) 한국사진문화상 시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운영 장학사업 진행 (연 3천만 원 규모) 각 지회·지부에서 해당 지역 사진 공모전 및 촬영대회 수행 			
		단체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1년 창립한 국내 최대의 사진예술 단체 한국예총의 10개 구성단체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산하 국제사진연맹 (FIAP)의 한국 대표 회원단체 현재 전국 160개 지회·지부와 1만 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회 입회를 위한 교육 및 공모전에 연 인원 약 2만 명이 참여 		
시설 및 전문인력	사무실 주소 연락처 현황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연락처	대표전화: 02-2655-3131 팩스: 02-2655-3130 담당자: 김형준 사무처장 (hj@pask.net / 010-7390-0079)		
	홈페이지	www.pask.net	이메일	pask@pask.net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 수: 10,000명 전국 160개 지회·지부로 구성 2개의 해외지부 (워싱턴, 시드니) 협회 사무처 상근인원 7명 			

2024 서울포토편스티벌 in aT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2023년 행사 사진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in aT -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테이프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외빈, 내빈들



특별전 시간여행 '서울 1970'을 관람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외빈, 내빈들



특별전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부스를 관람하는 관람객들



2023 서울포토편스티벌 in aT -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부스 전경모습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기금모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이 만큼 발전하였고 명실상부한 사진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전개하는 여러 활동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까지 이어간다면 사진예술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협회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장학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 350만원 이상 기탁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② 자문위원단

- 2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단 회의 참여 가능

③ 참여위원단

- 1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단에 참여 가능

④ 10만원 ~ 100만원 미만

- 이사장의 감사장 수여
- 위원장의 감사장 수여

〈전체 사진작가 1계좌 갖기 운동〉

1계좌를 100,000원으로 하여 장학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송고한 마음이 모여 후진들을 위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심의 집행하기 위한 장학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협회의 장학사업이 커지고 재단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기준

· 제30대 우수찬 이사장 3,000만원 기탁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운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심재안 장학위원회 위원장 1,000만원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운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1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현재 잔액 : 191,740,895원

‘2024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서 한중 사진 교류 본회, 中 예술사진학회와 ‘업무협약’

국내 최대 사진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와 중국예술사진학회(주석 양위안싱)가 손을 맞잡았다. 중국 베이징 중화세기단에서 개최된 ‘2024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에 참석한 양국의 사진단체 수장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중업무협약식(왕젠치 부주석, 유수찬 이사장)



한중업무협약식(자오잉신 예술감독, 유수찬 이사장)



업무협약식체결 후 단체기념촬영
(윤상섭 운영자문위원, 왕젠치 부주석, 유수찬 이사장, 자오잉신 예술감독, 김시묵 부이사장)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오프닝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입장식



먼저 10월 19일, 중국 문화여유부와 베이징시가 주최한 '2024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의 오프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중화세기단에서 진행되었으며 유수찬 이사장, 중국예술사진학회 종신 명예회장 양위안싱, 국제사진예술연맹(FIAP) 회장 리카르도 부시 등 20개국 사진계의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다. 협회에서는 김시묵 부이사장과 윤상섭 운영자문위원이 행사에 초대받아 유수찬 이사장과 함께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 오프닝에 참석하였다.

다음날인 10월 20일에는 중화세기단 특별무대에서 양 단체의 협력 증진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공식협약식을 시작

하기 전 회의실에서 한-중 대표들이 모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는 유수찬 이사장, 김시묵 부이사장, 윤상섭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왕젠치(王建琪) 부주석, 자오잉신(赵迎新)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예술감독, 후옌(胡艳) 중국예술사진학회 판공실 주임, 위페이란(于沛然) 베이징국제사진주간 조직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 왕루이(王睿) 중국예술사진학회 업무감독, 야오바오룽(姚宝龙) 중국예술사진학회 전시위원회 위원이 배석하였다.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기획위원회의 총괄 기획자인 왕젠치 중국 예술 사진학회 부주석은 먼저 중국 예술사진학회의 발전과 학회에서 주최하



양국 대표단의 간담회 모습

한국사진 발전을 소개하고 있는 유수찬 이사장

고 있는 주요 사진활동 행사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예술감독 자오잉신은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의 기본 상황과 올해 전시 활동의 특색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유수찬 이사장이 행사에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최근 몇 년간 한국 사진발전을 위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행보를 소개하였고, 김시묵 부이사장은 대한민국 사진예술 60년 역사의 발전 과정과 함께해온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조직 구성, 회원, 활동 현황을 소개했다.

좌담회에 이어 '한국사진작가협회와 중국예술사진학회', '대한민국사진축전과 베이징 국제사진주간'이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향후 양국은 국내 최대 사진전인 '대한민국사진축전'과 중국의 대표적 사진 행사인 '베이징 사진주간'에 상호 참여하게 되며, 상대방의 국제적인 사진축제 행사 주제에 따라 해당 테마의 사진 전시회를 기획, 추천, 조직하기로 하였다.

유수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이를 통해 한-중이 사진 예술로 상호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란 소감을 밝혔다. 이번 두 단체의 MOU 체결은 한국과 중국 간의 사진예술과 문화발전을 위한 큰 도약으로 평가되며, 이를 통해 양국의 예술가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묵 부이사장



윤상섭 운영자문위원



왕젠치 부주석



자오잉신 예술감독



f-stop



ICU 파티션 시리즈

듀라 다이아몬드 원단으로 더욱 강해진

틸로파 50L 아즈나 37L



쉽고 간편한 필터 교체 시스템

Haida® M10 필터



초광각 렌즈를 위한 렌즈 후면 장착 필터

Haida® 리어렌즈 필터



자석을 이용해 빠른 장착이 가능한 필터

Haida® 마그네틱 필터

BENRO®

2023년 단풍시즌 판매율 1위 브라이트CPL

세계 최초 단풍&야경 특수 자석필터

색보정이 필요없는 자동 보정효과

49mm 부터 95mm까지 사용가능!
BENRO MAGNETIC SPD BRIGHTEN CPL WMC 95mm FILTER
단풍사진 최적화 필터

레드+그린 채도 자동강조 효과에
난반사 제거로 보정없이 선명하게

CPL+ 야경필터를 하나로 만든
최초의 다목적 특수필터

단풍,불꽃,조명,야경 촬영
모두 가능한 최적화 필터

BENR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Let's go!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BENRO®

현역 프로 사진작가분들을 만족시킨 보이저레벨링CLVS

전문가용 3#4# 시리즈 카본 삼각대

20인치에 들어가는
컴팩트한 삼각대

기내 반입이 가능한
전문가급 삼각대



수평조절이
쉬운레벨링

접은길이 : 44cm
페이로드 : 20kg
무게 : 1.87kg

BENRO®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Let's go!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하늘에서 담아내는 멋진 풍경

DJI 브랜드 런칭

이제부터 DJI 드론 문의를 **벤로코리아**

브랜드 런칭 기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DJI 제품출시회를 국내 최초로 진행하는 벤로코리아는 DJI와 공식 판매 계약을 통해 공급해 드리는 서울 남대문 최대 정품 판매처입니다.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모나 용평 제휴사 패키지 할인안내

- 제휴사 모나 가을여행 PKG -

패키지구성



객실 1박



하반 조식뷔페

< 할인권 7종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40% • 용평위터파크 40% • 공릉해양랜드 30%
애니포레 20% • 모나 베이커리 10% • 더 샬레 10% • 팀다이브 20%

정상가 : 400,000원 > **89,000원 (77% 할인)**

예약방법

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2. 단체행사 → 제휴사예약 → 제휴사패키지 선택
3. 고객번호 입력 후 객실 선택 (고객번호 : **1190519**)

모나 용평 제휴사 패키지 할인안내

0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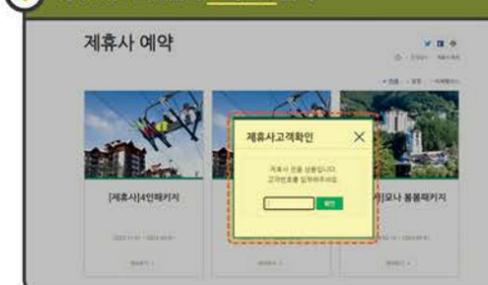
02. 단체행사 ▶ 제휴사 예약 접속



03. 제휴사 패키지 선택



04. 사전 안내받은 고객번호 입력



05. 날짜 선택 및 객실 선택 후 예약 진행



MONA YONG PYONG

카메라 장비 수납과 야외 촬영에 특화된 원프로 백팩 시리즈

OnePro Backpack Flex / Focux



Flex 30L | 40L | 50L

Focux 25L | 35L



QR 코드 스캔하고
자세한 정보 확인 하기

인체공학적
디자인



CORDURA

뛰어난 내구성의
코듀라 원단 & PU 코팅

10L 확장형 모드로
여유로운 수납



180°
풀 오픈 시스템



항공 알루미늄
3D 아치 프레임



메쉬 재질로
우수한 통기성



특허받은
프리핏 시스템



도톰해서 편안한
와이드 스트랩



대한민국 사진축전

전시작 출력부터 전시액자제작

- 회원전 및 사진작품전 대행

Artluxe® 총판

아트룩스는 천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실내, 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출력 전시계획-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PNP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라세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아트룩스 제품이라고 불법으로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필름 사진출력을
합성지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제품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반드시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2024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4 PASK KOREA Photo Festa

상단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2024 서울포토편스티벌 in aT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12.04 Wed - 12.08 Sun 2024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사진축전 참여작가 작품제작 특전

개인부스 작품설치 무료
 개인부스 작품철수 무료
 전국배송대행(배송비 별도)
 리플렛 & 브로셔 500부기준 특가제작



개인부스 작품설치 보기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두진아트 홈페이지 보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에 관한 모든것!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띠움 액자 뒷면



D5띠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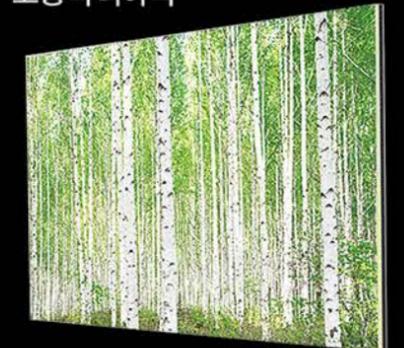
무반사디아섹 뒷면



무반사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 사이즈 (3R, 4R,5R, 6R, 8R,11R)





Arttre collaborates with photographers on photo exhibitions.

아트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시회 사진출력부터 액자까지 한번에 안성맞춤



아트레

T_ 1544-2188
M_ 010-3467-3513
Webhard_ ID_arttre PW_B108

정덕원
관리이사

1공점.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
2공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황봉로 28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Frameless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화이트엠티지 아크릴액자

White



Gallery frame 갤러리랩
신개념 랩핑액자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Black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Brown



제4회 ☆

군산전국학생 사진공모전

여러분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공모 가능

2024.12.2(월)까지 E-mail 접수



출품자격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

출품료

없음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학교생활상, 체험학습현장, 미발표 자유작으로 컬러 및 흑백 사진

작품규격

JPEG 파일접수(긴축 3000px 이상) - 휴대폰 사진도 가능함

접수처

군산지부메일 : bebe9006@naver.com

출품요령

접수 시 작품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을 정확히 작성하여 파일로 보낼 것

문의처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기타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시상 및 전시

심사일시: 추후 공지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추후 공지 (시험본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전시기간: 2024년 12월 20일(금) ~ 12월 31일(화)
전시장소: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시상내역

대 상 1점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상 상장 및 부상
최우수상 1점 -군산시장 상장 및 부상
우 수 상 2점 -군산시 교육장상장 및 부상(1점)
-군산시 시의장상장 및 부상(1점)
가 작 3점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상장 및 부상
장 려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상장 및 부상
입 선 3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상장

현상 및 출력

- ▶ 월포현상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59-9 예림빌딩 2F Tel. 02)2273-5301~2 Fax. 02)2275-5301
- ▶ 포토랜드 -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4(필동1가, 중앙빌딩2층) Tel. 02)2273-9321 Fax. 02)2273-9339
- ▶ 이현상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2길 7 Tel. 02)2279-7070
- ▶ 포토랩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707번길 31-2 Tel. 031)312-0971 Fax. 031)312-0973
- ▶ 도솔 스튜디오 -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7 Tel. 041)546-5550
- ▶ 삼오사진 - 평주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3 (금남로3가 1-5) Tel. 010-3622-4249
- ▶ 동양포토샵 현상소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487-1 Tel. 042)626-2500
- ▶ 대한포토 현상소 - 대구시 중구 태평로 273 Tel. 053)423-9003
- ▶ 김포토샵 - 대전시 대흥로24번길 10 Tel. 042)221-9853
- ▶ 로알칼라 현상소 - 대전시 동구 정동 14-17 Tel. 042)255-4122 Fax. 042)221-4122

기자재

- ▶ 브이티지엠피 - 경기 파주시 산업단지길 130번지 Tel. 02)3444-3800 Fax. 02)3444-3830
- ▶ 포토클램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6번길 21 Tel. 031)488-9111 Fax. 031)488-9119
- ▶ 신지스튜디오클럽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20 삼승빌딩 Tel. 02)790-1310 Fax. 02)792-1310
- ▶ 벤로코리아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17-11 흥국생명 1호별관 1층 Tel. 02)775-6621 Fax. 02)773-9724
- ▶ 코리아 포토프로덕트 - 서울시 중구 동호로 343 2F Tel. 02)3436-6775 Fax. 02)3436-6776
- ▶ 무한미디어 - 서울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1층 Tel. 02)518-7808 Fax. 02)6455-5808
- ▶ 강산컴퍼니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7길 25 청림빌딩 103호 Tel. 02)771-9891 Fax. 02)2265-0714
- ▶ 줌인 - 부산시 중구 광복로 95-1(광복동 36-2) Tel. 051)255-0300 Fax. 051)256-2211

액자

- ▶ 아트룩스 총판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대한민국예술인센터) 1603호 Tel. 02)2653-9007 Fax. 02)2654-9007
- ▶ 두진아트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신전동 496번지) Tel. 031)314-1085
- ▶ 아트래 -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대천동) Tel. 1544-2188
- ▶ 동일액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1-8 Tel. 063)282-6444 Fax. 063)231-6443
- ▶ 갤러리 예담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33번길 40 Tel. 1588-4286 Fax. 051)311-7791
- ▶ 공간액자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44-2 Tel. 042)222-2245
- ▶ 포토천지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929 Tel. 063)712-5509
- ▶ 삼원종합액자 - 대구시 남구 대봉로19길 28-2 Tel. 053)476-8959
- ▶ 한양액자 - 대구시 중구 태평로 51길 5-9 Tel. 053-428-1216
- ▶ 스마트액자 - 대구시 중구 종로 69(대안동) Tel. 053-426-8806
- ▶ 동진액자 -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077번길 6 Tel. 031-311-6575~6

광고주님을 모십니다.

광고게재 요청시 본 협회 및 전국지회, 지부 행사참여가 가능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광고문의 : 02-2655-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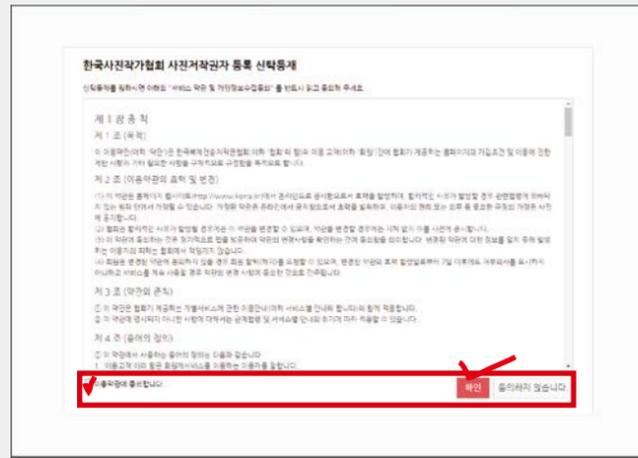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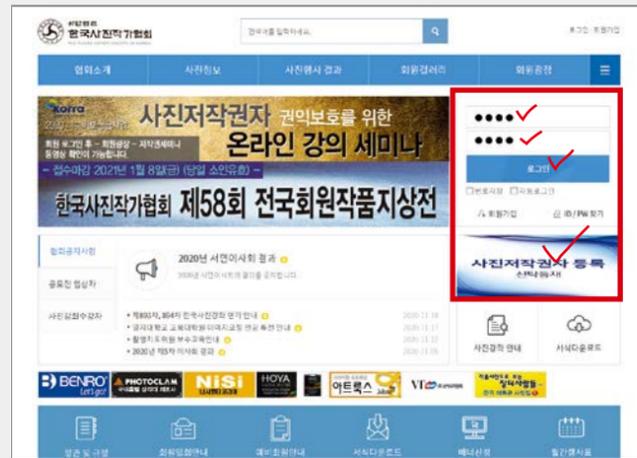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권자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권자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배너광고 클릭

-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속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 3**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 4**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 5**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가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표지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본 협회 회원이면 참여가능 /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심의 선정
 -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원본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 고려요망)
 - ※ 단, 촬영데이터 (Capture Date & Time,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gth, Filter, White Balans Temp, Develop Data, Merge(합성) 내용, Panorama, Bracketing(HDR,WB Focus),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ling,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현상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함.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사항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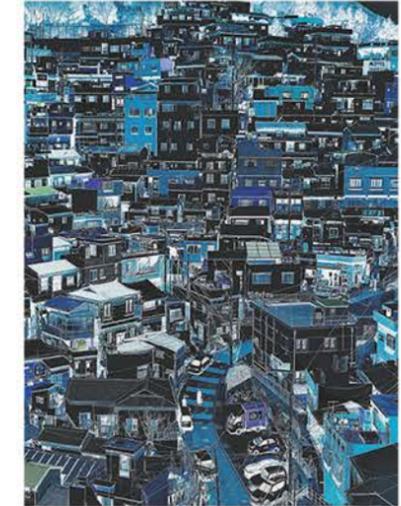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sak / 비밀번호 kpsak 접속 후 →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十 월간 한국사진 11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손명권
· 가을



· 홍이선
· 깊고 푸른 산동네

50권 행복

작품집 기획부터 인쇄 완료까지 함께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 내 인생의 작품집!

작품집 기획하고, 작품선별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사진작품집 소량인쇄로 내 인생 사진작품집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 인생 사진작품집 - 행복을 문의해 보세요. 월간 한국사진 편집장 **노성진** 010-3387-0244



©Yoo Su Chan

없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우주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를 만나다

정연수(수원)



©정연수

전시일시 2024년 12월 9일(월) ~ 12월 14일(토)
전시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갤러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개 전 식 2024년 12월 9일(월) 오후 5시
전시작가 정연수(010-4335-9463)

©정연수





©정연수

평생을 사진과 함께 했습니다. 평생 사진을 찍었습니다.
푸른 꿈을 가졌던 청년 시절부터 늙수그레한 지금까지 50여 년을 사진과 함께 했습니다.
전국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며 사진을 찍다 보니 어느새 한세월이 꿈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여름날, 집 주변을 산책하다 작은 생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숲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청소년문화센터 뒤편에 그리 크지도 않은 작은 풀밭 정도에 지나지 않는 공원인데 그곳에 곤충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어떻고 생태계가 어떻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 가까운 곳이고 멀리 가지도 않아도 내가 쉽게 찍을 수 있는 피사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차츰 시간이 지나며 곤충의 매력에 빠져들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찍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신비하게도 그저 풀이 조금 있다고 생명체들이 모여들어 사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경이롭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사는 곤충으로는 여러 종류의 개미와 노린재, 각다귀, 호랑거미, 무당벌레, 응애를 비롯하여 메뚜기목에 속하는 곤충만 해도 벼메뚜기, 섬서구메뚜기, 밀들이메뚜기, 등검은메뚜기, 좁쌀메뚜기, 삼사리, 방아깨비, 여치, 풀무치, 콩중이, 팔중이, 곱등이, 귀뚜라미가 있고 각종 잠자리와 배추흰나비, 부전나비, 쇠파리 등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많은 곤충이 모여 저마다의 독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곤충의 탄생부터 죽

음 그리고 사랑과 약육강식의 질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처럼 모든 것이 다 있는 작은 우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곤충의 색을 보면 빛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보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색채가 변화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곤충의 세계는 운동 신비롭고 대부분 미지의 영역이라 사진을 찍으면 찍을 수록 빠져들게 됩니다.

곤충은 인간보다도 훨씬 먼저 지구에 등장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곤충 화석은 약 3억 8천만 년전 고생대 데본기의 특도기류 화석인데 곤충의 종류는 모두 100만 종이 넘게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종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곤충을 '버려지'라고 하지만 곤충은 지금도 인간보다 훨씬 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곤충은 인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나 인간은 곤충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연수





©정민순_노년의 초상

지혜롭고 강인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년의 초상

A portrait of oldage

정민순(의정부)

전시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 12월 4일(수)

전시장소 의정부 문화재단

전시오픈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 3시

전시작가 정민순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주름진 얼굴에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강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인생 노정에서 경험한 다채로운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같이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정민순_노년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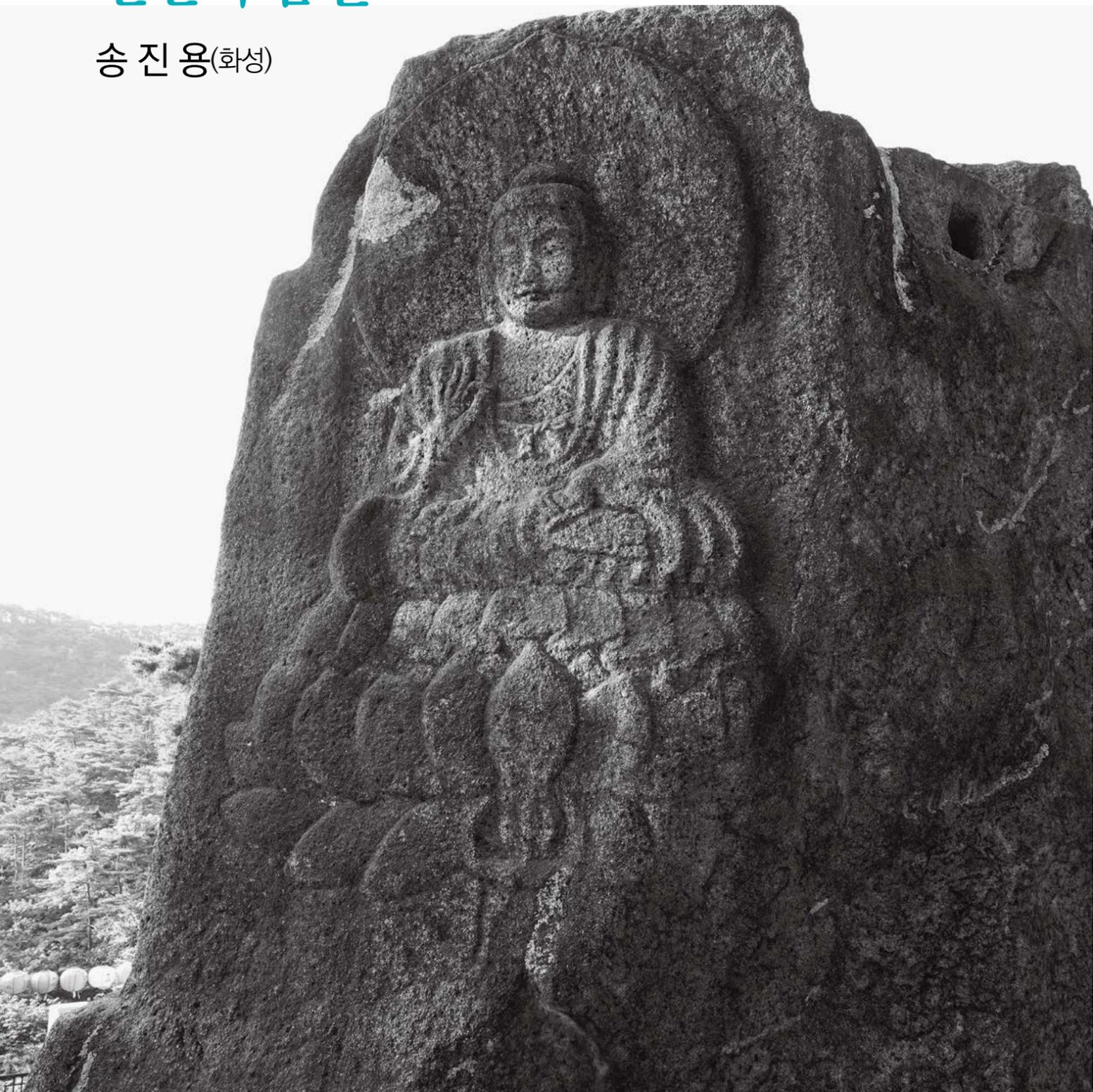
오랜 시간 그들의 공간과 세월의 흔적을 찾았지만, 나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이처럼 긴 이야기로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그들은 진실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우며 지혜, 인격의 강인함, 평생의 꿈을 암시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완벽한 피사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노인들의 따뜻함, 평생의 이야기, 진실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좋아했겠지만 나에게 이들의 표정과 행동들은 사실, 아버지이고 어머니였습니다.

우연히, 건네는 말 한마디에 정이 느껴지고 가까이 바라보는 주름에서 내 부모님의 모습을 찾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그들을 파인더로 바라볼 때면 표정에는 활기가, 주름에는 삶의 경험이, 거친 손에는 고담함이, 반짝이는 눈에는 삶의 지혜가 깊이감으로 읽히며 나도 모르게 그들을 찾을 때마다 감정이 더해졌습니다. 나의 사진 작업 '노년의 초상'을 통해 내가 사진적 표현으로 이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펼쳐려고 긴 시간 노력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불교의 인연이 계속되길...

천년의 숨결

송진용(화성)



©송진용_천년의 숨결

전시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 12월 3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이즈갤러리 2F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52-1 / Tel. 02-736-6669)
전시작가 송진용(010-4787-3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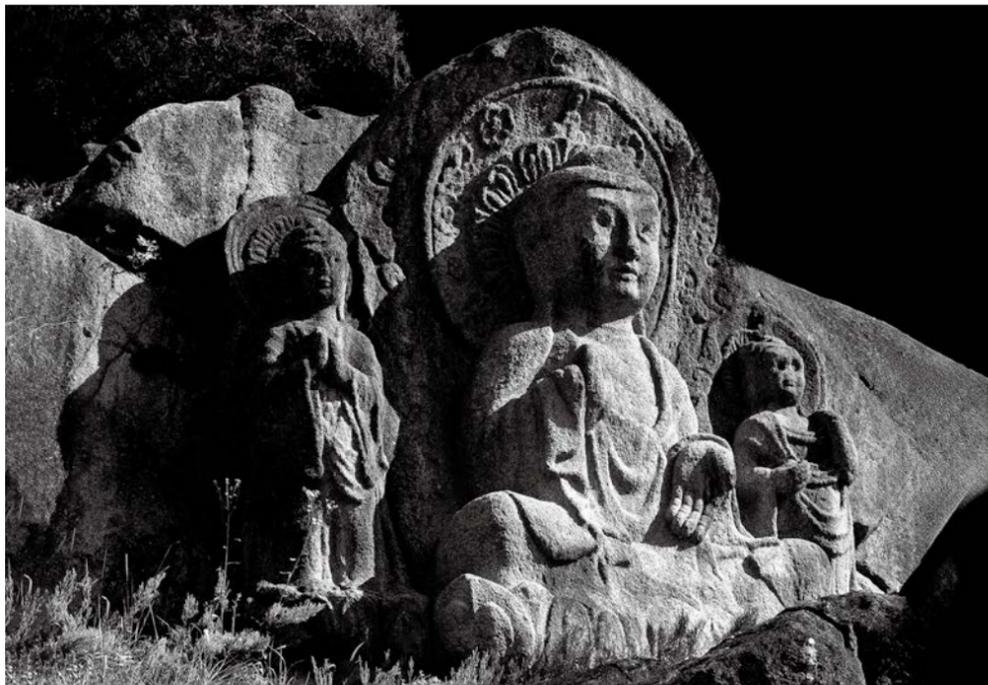


©송진용_천년의 숨결



©송진용_천년의 숨결

깊은 산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힘겹게 오르다 혹여 아름다리 정자나무를 만나거나
커다란 바위를 마주하면 힘겹게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난다.



©송진용_천년의 숨결



©송진용_천년의 숨결

우리의 불교문화와 어머니의 믿음처럼 토속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선조들은 후대 우리에게 값진 문화유산을 남겨주셨다. 특히 불상과 마애불은 전국의 폐사지와 산자락에 산재되어 있으며 우리와 함께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커다란 바위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정과 망치로 바위에 새겼다고 한다. 이처럼 바위 속의 부처님을 찾아낸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바위가 간직한 부처님상을 찾는다는 말일 수 있다. 바위 속의 부처님을 머리에 그리며 평생을 기도와 신념으로 바위를 두들기고 또 두들겨 부처상을 완성하시었고 그 혼을 문화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나의 사진 작업 <천년의 숨결>에서 내가 천년을 간직한 불상과 마애불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선조들의 염원이 투사된 혼의 정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처럼 나의 사진 작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천년의 시간을 담는다는 나의 새벽길 발걸음으로 이어진다. 인간 삶이 흔적을 남겨야 백 년도 못 버티는 것이겠지만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는 불교미술과 역사를 기록한다는 나의 궁지는 부처님처럼 천년의 역사로 남길 바라며, 불교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송진용_천년의 숨결



©송진용_천년의 숨결

내 사는 그곳서 기록한 '바다 숲 나무 꽃' 자연에 마음을 엮다

김정희(울진)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전시일시 2024년 12월 7일(토) ~ 12월 10일(화)
전시장소 울진 연호문화센터
전시작가 김정희

새벽 바다에 나가 보았다. 먼 곳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빛의 속도에 따라 어둠에 잠겨 있던 무채색의 바다가 서서히 파랑으로 변해가고, 파도는 바람을 타고 해안까지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며 사멸한다. 그 끝없는 생성과 소멸이 덧없어서 더욱 애뜻하고 아름답다.

바다는 하루도 같은 얼굴인 적이 없다. 매일매일 다른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 바다. 가끔은 순한 발걸음이었다가, 대열을 이루고 달려오는 발굽소리였다가, 포효하는 성난 맹수의 폭주일 때도 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대지와 하늘을 연결하는 소나무의 장엄함은 어떤가. 곧고 푸른 기상으로 우뚝 서 있는 울진의 금강송들은 함께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지만 익명으로 남지 않는다. 저마다 개별적인 특별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겨울을 견뎌낸 인고의 색깔로 깊고 푸른 그 숲은 어떤 가혹한 상황도 피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시간의 무게를 견딘다.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특히 600여 년의 세월을 침묵으로 지켜온 대왕금강송은 붉은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누구든 그 단심 앞에 서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울진의 표상이었다. 이제 그 위용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 이유가 기후 위기이든 나무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든 오랜 시간 숲을 찾아와 위로를 받았던 이들의 마음까지 허물어졌다.

하지만 사진은 시간을 담는 작업이기도 하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거나 미래로 보낼 수도 있다. 나의 작업은, 이제는 스러진 대왕금강송의 모습을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다. 긴 시간 지켜보며 차곡차곡 쌓아왔던 아름다움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처럼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이다. 바다, 숲, 나무, 꽃..... 특별한 것 없는 무심한 풍경에 나만의 무늬를 새기는 작업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지만 그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나만의 생각과 감성을 담아 다양한 울림을 가진 목소리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나에게 카메라는 스케치북이자 직관과 자생의 도구이며 시각의 견지에서 묻고 동시에 결정하는 순간의 스승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결정적 순간'의 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었던가? 나에게도 사진은 사물의 모습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만이 상상할 수 있는 생각을 직조하고 싶어 미혹한 마음을 자연에 살짝 엮어보았다. 결국 사진이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시각이므로.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사진은 시간을 담는 작업이다. 대왕금강송의 기상도 끝없이 생성 소멸하는 파도도 내 카메라 앞에서 한 때 거기에 있었음을 알리려 포즈를 취해온다. 나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부르거나 미래로 보내고자한다.



©김정희_자연에 마음을 엮다

바람따라 흐르는 희망의 메신저 생명의 씨

김애란(안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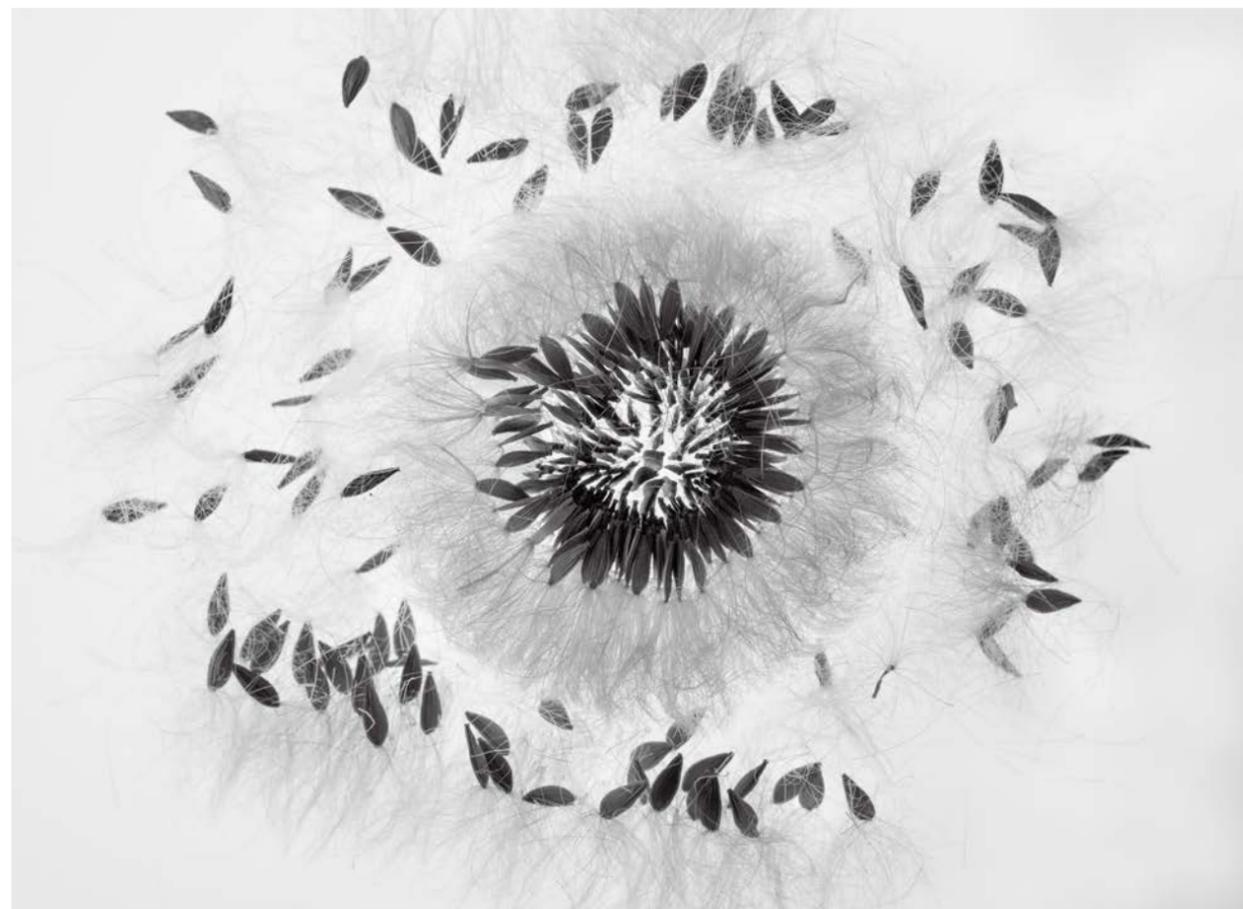
©김애란_서양민들레, 2024



©김애란_설강바람꽃 #01, 2024



©김애란_도깨비바늘, 2024



©김애란_영강귀 #02, 2024

전시일시 2024년 12월 2일(월) ~ 12월 13일(금)
전시장소 국회아트갤러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오프닝 2024년 12월 2일(월) 17시 30분
전시작가 김애란 (010-7997-6889)

작은 씨가 분화하여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마치 화산이 폭발할 때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있다.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라한다면 씨앗 하나의 싹틈이 그것을 닮지 않았을까.



©김애란_소리쟁이, 2024

십여 년 전 '야채의 초상'을 시작으로 '야채의 유통'을 사진으로 작업하여 발표하였고 오랜 시간 야채를 탐구하다가 그 의식이 확장되어 생명의 시작인 씨앗으로 관심이 전이되었다.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젖병을 물고 요람 속에서 잠



©김애란_목화,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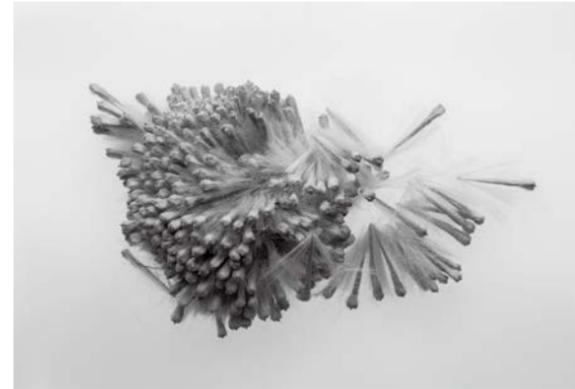


©김애란_생명의 씨 # 02, 2024

든 아기처럼 느껴진다. 저 깨알만큼 작은 것들이 언제 싹을 틔워 꽃을 피울까 하는 염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사람과 달리 씨앗은 일찍이 모체에서 분리되어 홀로 세상에 나온다.



©김애란_무궁화, 2024



©김애란_버즘나무 #02, 2024

일반적으로 씨앗은 식물체가 될 배아와 발아에 필요한 영양분을 간직하고 있는 배젖, 씨앗을 보호하고 있는 껍질로 이루어져 있다. 씨앗은 서식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하였다. 튼튼한 껍질 속에 감추어진 생명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털, 그리고 바람을 타고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단풍나무 씨앗처럼 날개 등으로 무장한다.

생명의 기운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작은 씨앗을 매크로렌즈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육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죽은 것처럼, 생명의 기운이 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칙칙한 작은 덩어리 속에 활화산 같은 뜨거운 생명의 불씨가 담겨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씨앗은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며 언젠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려 죽은 듯 실눈 뜨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생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이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생명의 기원이 우주에서 왔는지, 자연 발생한 것인지, 신에 의한 창조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작업은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씨앗을 통해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매크로렌즈를 최단 거리로 접근하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였고, 씨앗을 홀로 세상에 떨어져 비바람과 추위에 맞서는 사물로 인식하여 개별적 존재로 촬영하였다. 또한 매크로 작업은 더 정밀한 촬영을 위하여 실내에서 인공조명으로 작업하였다. 씨앗을 작업하며 작은 생명에서 무한한 기운을 느끼며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기에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애란_범꽃, 2024

©김애란_버즘나무 #01, 2024



지난호에 이어 교토그래피 2024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세계 사진의 경향과 흐름을 진단해본다. | 글. 월간 한국사진 편집장 노성진

Tokuko Ushioda 우시오다 도쿠코 “Refrigerator + My Husband Band”



우시오다 도쿠코 전시작품



우시오다 도쿠코 전시작품

Tokuko Ushioda
우시오다 도쿠코

Supported by KERING'S WOMEN IN MOTION



©아사노 타케시-교토그래피 2024



©아사노 타케시-교토그래피 2024

우시오다는 1975년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78년 사진작가 시마오 신조(島尾新三)와 함께 딸 마호(馬津)를 낳은 직후, 1888년에 지어진 도쿄 고토쿠지에 있는 서양식 건물(구 오자키 테오도라 하우스)로 이사했다. 전시작품은 딸이 태어난 후 약 7년에 걸쳐 남편과 딸, 그리고 서양식 주택의 생활을 포착한 <남편의 밴드>와 자신의 삶을 기록하듯 집 안의 냉장고를 고정점으로 관찰한 것에서 시작해 지난 20년간의 가정용 냉장고를 촬영한 연작 <냉장고 / ICE BOX>를 전시한다.

2019년 3월 나는 40년간 빌렸던 오래된 서양식 주택의 2층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 구석의 옷장 뒤쪽에서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골판지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현상하고 인화한 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내가 완전히 잊고 있던 이 상자 안에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내 남편 시마오 신조와 갓 태어난 딸 미호와 함께 이 방에서 살았던 내 삶과 그 이전의 다양한 작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그 당시에 경험했던 감정에 단순한 향수가 너무 끌렸다.

방은 2층에 있었고 남쪽으로 직접 열리는 큰 창문이 있었고 바닥 면적은 약 25제곱미터, 천장 높이는 3.5미터 전체적으로 정사각형 주사위

의 인상을 주었다. 오른쪽 옆집에는 정원사와 그의 가족, 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세 아들이 살았다. 왼쪽 옆집과 복도 건너편 방은 모두 청년들이 살았다. 집주인 가족은 1층에 살았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정용품은 남편이 어딘가에서 가져온 북극곰만한 크기의 대형 스웨덴 냉장고와 손님이 오면 바로 침대가 되는 소파뿐이었다. 주방은 방 구석에 있는 정사각형 목재 조각으로 만든 테이블에 파란색 아연 도금 철판을 씌운 것에 불과했고, 그 위에 작은 가스 스토브 하나만 있었다.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변기와 세면대는 1층에 있었다. 나는 과일 칼로 야채를 다졌고, 과자 상자의 나무 뚜껑을 도마로 사용했다.

창무로 빛이 가득한 방을 나서면, 희미하게 조명이 비친 넓은 복도와 계단이 눈에 들어온다. 한 달에 한 번씩 복도, 계단, 화장실을 청소하는 차례가 되었다. 물통에 적신 먼지 걸레를 짜서 맘을 흘렸고, 그동안 학생 시절에 학교 복도를 닦던 일이 떠올랐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복도와 계단 주변에 있는 더러운 석고 벽에 아이들이 낙서한 것을 흘깃 보았다. 만져도 시원했다.

나는 내 인생의 예상치 못한 동반자인 냉장고에 관심을 돌리고 그것의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다. 열고 닫았다.



우시오다 도쿠코(1940년) 《나의 남편 ©우시오다 토쿠코》 시리즈 중에서, PGI 제공



우시오다 도쿠코 전시작품 PGI 제공

Tokuko Ushioda 우시오다 도쿠코

1940년 도쿄 출생. 1963년 구와사와 디자인 연구소 대학원 리빙 디자인 연구과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졸업. 같은 연구소에서 사진작가 이시모토 야스히로(Yasuhiro Ishimoto)와 오츠지 세이지(大津治)에게 지도를 받아 사진작가가 되었다.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구와사와 디자인 연구소와 도쿄 조케이 대학에서 사진학 강사로 재직했다. 그는 1975년경부터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다양한 가정의 냉장고를 촬영한 'Refrigerator/ICE BOX',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소재로 한 'BIBLIOTHECA' 등이 있다. 2018년 도문 컨상, 일본 사진 협회 아티스트상, 히가시카와 국내 아티스트상, 2019년 구와사와 특별상을 수상했다. 2022년 그의 사진집 "My Husband's Band"는 Paris Photo-Aperture PhotoBook Awards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우시오다 도쿠코 전시작품

Rinko Kawauchi 카와우치 린코

“Cui Cui + as it is”



©아사노 타케시-교토그래피 2024



카와우치 린코 전시작품

Rinko Kawauchi
카와우치 린코

Supported by KERING'S WOMEN IN MOTION
CENOGRAPHER: MIHO OTAKA (APLUS DESIGNWORKS)



©아사노 타케시-교토그래피 2024



카와우치 린코 전시작품

그 안에 깊은 연약함과 근본적인 생명력을 끌어내는 섬세한 감성으로 일본 및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진작가 카와우치 린코(Rinko Kawauchi)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인 이번 전시회의 파트너로 우시오다 도쿠코(Tokuko Ushioda)를 지명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사진작가로서 활약해 온 점, 눈앞의 삶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점, 존경스럽다"고 카와우치는 우시오다에 대해 말한다. 이번 전시는 이들의 가족 사진 시리즈를 한데 모았다.

카와우치는 태어나서 학생 시절부터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의 죽음, 형과 아내의 조카의 탄생 등, 13년에 걸쳐 가족을 촬영해 온 결과, 가족

순환을 테마로 쿠이쿠이, 자신의 탄생 후 약 3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만난 아이들의 이미지와 익숙한 풍경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다. '쿠이 쿠이'는 침새의 지저귀 소리를 연상시키는 프랑스어의 의성어이다.

나는 이 작품을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이 단어가 우연히 내가 그곳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프랑스어 사전을 넘기던 중 눈에 띄었다.

나는 내 새로운 작품에 어떤 제목을 붙일지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단어의 울림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온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작은 새들의 지저귀이 마치 가족의 삶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사소한 사건들, 제



©카와우치 린코, 무제, 그대로 시리즈에서, 2020



©카와우치 린코, 무제, 그대로 시리즈에서, 2020

가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할아버지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제 연습 대상이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었다. 내 할아버지는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죽음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종종 궁금했다.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삶의 가치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나는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주려는 특별한 의도 없이 나는 계속해서 가족의 이미지를 매일매일 일상을 모았다.

그 후, 내 남동생이 결혼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다음 해에 조카가 태어나서 하나의 가족 생활이 완성되었다. 얼마 후 내 임신과 출산은 내가 걸어온 길을 상당한 영향으로 바꾸었다. 어린아이와 함께 사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지만, 그 부담 속에서도 이 스트레스를 가볍게 털어내는 기쁨과 발견이 있어, 삶에 대해 반드시 적극적으로 안았던 저를 삶에 집중하도록 격려한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은 내 의지로 만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각자와 함께 보낸 날들을 사소한 다툼과 공유된 기쁨의 작은 순간을 동반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순간들은 계절처럼 오고 갈 것이고, 언젠가는 내 딸도 자신의 가족을 찾지도 모른다.

Rinko Kawauchi 카와우치 린코

1972년 시가현 출생. 2002년 "우타타네"와 "불꽃놀이"로 제 27회 기무라 이헤이 사진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에는 Sony World Photography Awards에서 Outstanding Contribution to Photography Award를 수상하는 등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일루미넨스』(2011), 『아메초치』(2013), 『헤일로』(2017) 등이 있다. 최근 출간한 저서로는 사진집 『아마나미』(2022)와 『지금 여기』(2023, 타니가와 슌타로 공저) 등이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도쿄 오페라 시티 미술관과 시가 현립 미술관에서 '카와우치 린코: M/E-On a Sphere: Infinite Continuity'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정정희 장날



©정정희 장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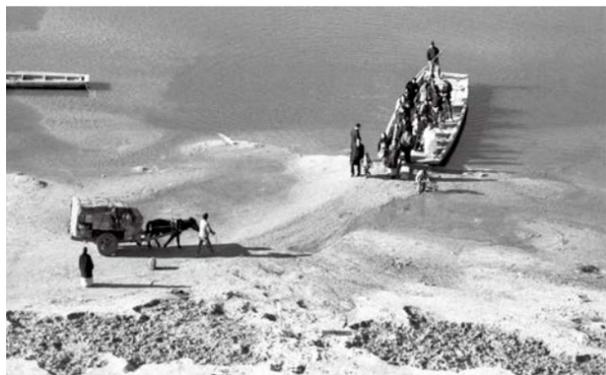


©정정희 장날

전국의 장날에는 한국인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다.
 카메라를 들고 그 시절 그 현장을 누벼 본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팔며 술한 이야기가 오고 간
 이 나라 특유의 정서를 그 삶의 표정을 촬영하는 재미에 푹 빠져들게 된다.

흑백 사진에 담은 그 시절 삶의 현장 장날

정정희(부산)



©정정희 장날



©정정희 장날



©정정희 장날



©정정희 장날



©정정회_장날

어떤 사람은 정정회의 '장날'은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리얼리즘 정신과 예술가로서의 감수성이 결합되어 있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작품이라 말한다. 장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힘들고 고단함을 달래주고 있는 삶

의 현장이다. 나도 이제 우리 나이 80후반으로 그간 전국의 많은 장터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왔다. 그간 살면서 장터의 사람들과 장터가 아닌 곳의 인간의 모습들을 찍었다.



©정정회_장날



©정정회_장날



©정정회_장날



©정정회_장날



©정정회_장날

특히 장터는 광주 밑에 있는 담양장, 곡성, 구례장, 자갈치시장, 오시계 장터, 쌀팔고 곡식 파는 창녕장, 소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영천장 등 많은 장터를 찾았다.

1970년 초에는 흑백사진을 위주로 촬영하였고 그 후, 컬러사진도 함께 촬영했지만, 역시 흑백사진에 대한 매력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2012년 부산의 고은 미술관에서 '장날' 흑백사진 90점을 전시했는데 당시 아주 좋은 인기를 끌었고, 오늘 이 작품들은 그 전시작품이 아닌 또 다른 장날을 표현하는 작품들이다.

작품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정회_장날



©정명오_breaking silence / paris 1990



©정명오_unkanjima / nagasaki 1989



©정명오_hangang1988 / seoul 1988



©정명오_ghangang1988 / seoul 1988



©정명오_with the wind / seoul 2005

무심코 스치는 풍광 잡아낸 '순간포착' FOSSIL OF PERSPECTIVE

정명오

계원 예술대학교 사진예술학과 교수, 계원예대 아시아 문화교류 연구소장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피사체들과 풍광들 가운데에는 내 마음을 끌어들이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이들 평범한 대상들을 나만의 시각으로 선택하여 온화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그 순간은 마치 화석처럼 확정된 작품으로 남는다.



©정명오_hangang1988 / seoul 1988



©정명오_breaking silence / pilatus 1990



©정명오_breaking silence / venezia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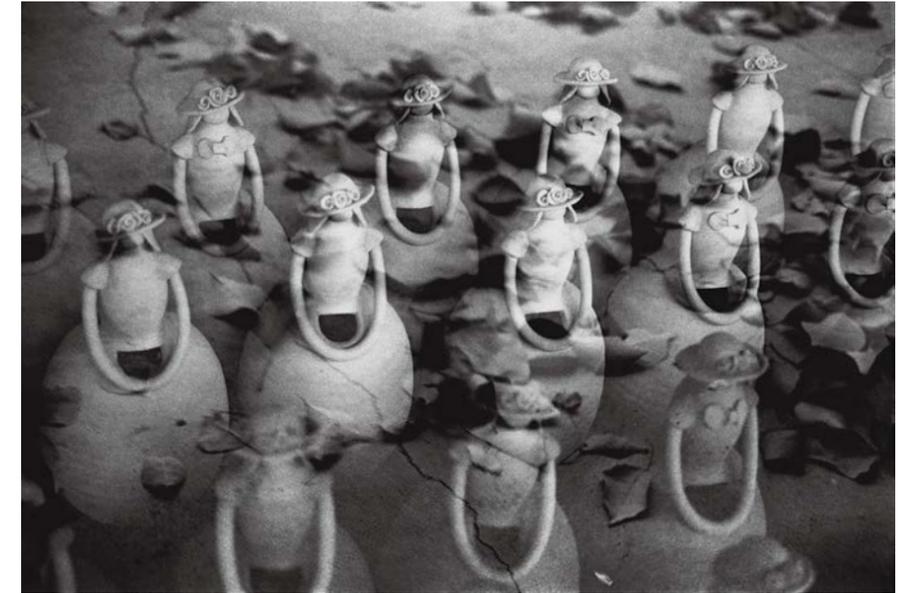


©정명오_breaking silence / giesen 1990

사진집 'FOSSIL OF PERSPECTIVE(시점의 화석)'은 1985년 ~1993년 일본의 정과 감성을 표현한 '和' 시리즈, 1988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의 '한강1988' 시리즈, 1988년 ~ 1989년 일본 나가사키의 폐허의 무인도를 촬영한 'GUNKANJIMA' 시리즈, 1990년 유럽의 현장감과 분위기를 주관적 시각으로 표현한 'EUROPE - breaking silence' 시리즈, 2001년 ~ 200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모로코 등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AFRICA - end of sky, end of land' 시리즈, 2006년 ~ 2019년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의 시공간을 초월한 시각의 일관성을 주제로 작업한 'with the wind' 시리즈, 2000년 ~ 2022년 일본에 대한 재발견과 일본다움을 표현한 'JAPANESE' 시리즈 등 40년 동안 작업한 20개의 시리즈 중에서 7개의 포토폴리오를 선택하고 10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하여 '주관적 시각과 서정적 감성'이라는 나의 사진 미학을 보여주는 사진집이다.

작가 의식과 작업 개념

내가 접하는 수많은 광경 중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scene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멋있는 경치나 충격적인 모습들이 아니면서 연출 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광경들이 나에게 있어서의 photogenic한 소재들이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런 모습들 중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며 왠지 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순간 전파되어 오는 자연의 발신음이 나의 뇌리를 진동시킬 때 자연스러운 shutter timing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 일상에서 누구나 보고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대상들을 나만의 주관적 관점과 감성으로 선택하여 온화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Fossil of Perspective'의 개념이다.



©정명오_wha / fukuoka 1989

작가의 작업 마인드

- 관점이 독특하면 사진도 독특하다.
- 순수하고 따뜻한 영혼은 순수하고 따뜻한 사진을 만든다.
- 사진에서 진부한 소재는 없다. 다만 접근 방법이 진부할 뿐이다.
- 나는 '대상'을 보면서 '왜' 보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하고 탐구한다.
- 좋은 사진을 위한 법칙이란 없다. 단지 좋은 사진만 존재 할 뿐이다.
- Camera Eye는 나의 정체성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 나는 사진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감정을 부여한다.
- 내 사진은 현실의 대상에 생각과 감정을 더한 사실적 이미지다.
- 사진에는 보이는 것 외의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한다.
-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물의 느낌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이다.



©정명오_wha / fukuoka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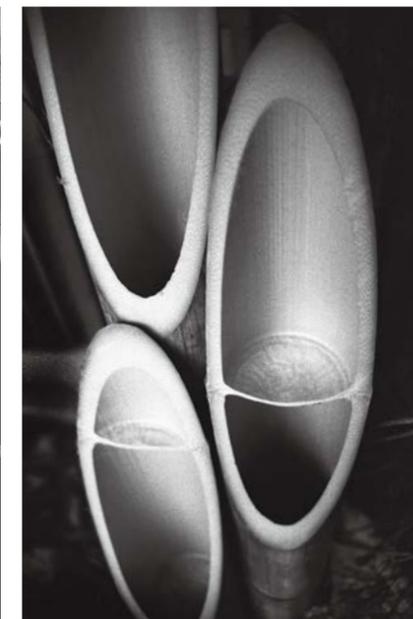
©정명오_wha / fukuoka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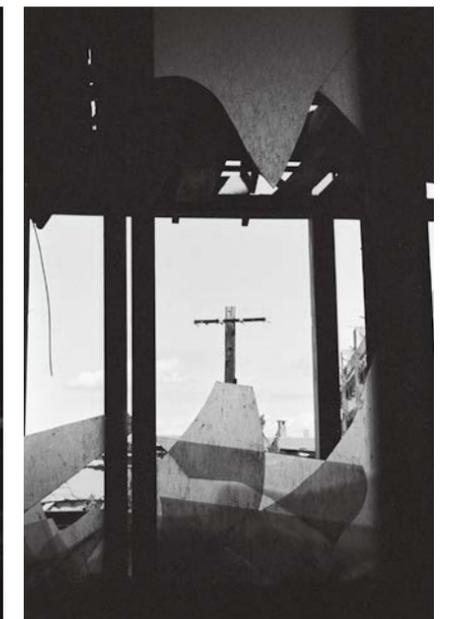
©정명오_gunkanjima / nagasaki 1989



©정명오_breaking silence / venezia 1990



©정명오_wha / fukuoka 1986



©정명오_gunkanjima / nagasaki 1989

시와 함께 추적한 나의 뿌리, 나의 출발점 기억의 전이 Memories in Transfer

윤은숙(경기광주)

갤러리 전경



갤러리 전경



갤러리 전경



갤러리 전경



갤러리 전경

나는 결혼 후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과 변화된 일상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결혼 직후 친정에서 발견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기념사진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 우리 엄마도 엄마가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우연히 시댁의 낡은 사진첩 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의 사진과 겹쳐 지면서 이번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성 중심의 '어머니' 작업을 시작했고, 이후 남성 중심의 '아버지' 작업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는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낯선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그 기념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판화지에 폴라로이드 필름을 전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

판화지에 전사된 흐릿한 이미지는 나의 기억 속 부모님과 사진 속 부모님의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전사 기법으로 표현된 이미지들은 원본의 뚜렷함을 잃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고 변형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인간의 기억을 상징하며, 부모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얽히고 설린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부모님 세대가 격동의 시간을 살아온 세대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모님의 개인 삶이 곧 그 세대의 삶



©윤은숙_Mothers _ Fathers _ 각각 30.5x25.5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 pastel coloring _2001

사진으로 존재하는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출발점 나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AI와 함께 그들의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흐릿한 영상으로 표현하여
부모님의 기억이 내 기억에 전이되는 것을 표현했다.



©윤은숙_A reading father _25x60cm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윤은숙_시아머니와 두 분의 시할머니 _ 19.5x51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윤은숙_가족사진III(시아머니의 가족사진)_ 60x25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윤은숙_아버지_ 25x19.5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윤은숙_어머니와 외할머니_ 25x19.5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윤은숙_외할아버지 25x19.5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윤은숙_Fathers in the military_40x25cm 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 pastel coloring _2001

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얼굴은 모르지만 사진으로 존재하는 외조부와
시조부의 모습, 군대에 간 아버지, 대학 시절
의 시아버지, 임신한 몸으로 촬영한 어머니의 가
족사진은 나에게 자신의 출발점과 뿌리를 되
새기게 한다.

나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으며 감정
의 기복이 심했던 시기에 이 작업을 통해 과거
의 사진을 통해 현재의 '나'를 직시하고 재정립
하는 계기를 얻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작업은
관객들 또한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자신을 재조
명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
어졌다.

오래전 작업을 다시 마주하며 그 시절 그 분들
의 기억이 나에게로 트랜스 된 것인지도 모르
겠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의 마음을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 작업을 통해 전달해 보았다.

이번 작업은 기억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족
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이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삶과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



©윤은숙_Father's chronicle 1_120x80cm_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 wood panels on C-print _2008



©윤은숙_가족사진 I (시아머니와 함께한 어머니의 가족사진) _25x60cm_ Polaroid image transfers on korean paper _1998

강은 흐르고 기억은 교차한다 제 2회 칠곡국제트랜스미디어축제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전시전경

10월 4일 칠곡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칠곡국제트랜스미디어축제>가 시작되었다. 교통의 요지이자 다양한 문화가 교류된 트랜스의 특성을 보이는 칠곡에서 낙동강을 매개로 한 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인문 경험의 공유지로서 칠곡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목적 아래 2023년 1회를 시작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11월 10일까지 36일 동안 예태미술관, 향사아트센터, 호국평화기념관, 칠곡보 생태공원 등 칠곡군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캐나다, 스웨덴, 한국 등 국내외 작가 22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13명의 작가가 참여한 대표 전시인 <주제전> 외에도 칠곡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칠곡사람들의 활형한 사진들로 구성된 특별전 <칠곡사람들>, 호국평화기념관 잔디 광장에 거대한 미디어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미디어큐브> 설치전, 칠곡의 이야기를 오

토마타 인형극으로 만나게 될<시간극장>, <길 위의 사진전>등 도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보여지며 이와 연계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칠곡국제트랜스미디어 축제는 2022년도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화예술 행사로 알고 있다. 5년간 추진한다고 하니 이 축제도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5년은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작년보다 발전된 올해의 모습이 있었기에 내년에 더욱 확장되고 깊이 있는 3회를 기대하게 된다. 기간이 11월 10일까지라서 이 글을 보는 날로부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지만,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의 장이 또 하나 생



Lovisa Ringborg, THE LIVING ROOM (BED), C-print, 154.5 x 174.5cm, 2023

<거실(The Living Room)>은 꾸며지지 않은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방을 보여준다. 정리되지 않은 침대, 의자위의 천, 따스하게 빛나는 조명 등 사소한 일상적 요소들은 삶을 암시하고 있다. 오래된 기억이 각각의 이미지 속 작은 변화들을 일으킨다. 또한 작가는 주광(daylight)과 적외선을 결합하여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뿐만 아니라 열의 존재를 포착해 내어 기억의 질감을 표현한다. 사진을 통해 창 너머 바깥의 것은 볼 수 없으며 오로지 방만 경험하도록 한다. 방은 안전한 공간인 동시에 특징이 없는 폐쇄적이고 공포감을 주는 공간으로 고조된 긴장감이 존재한다.



Don Ritter, Wet, Video, sound, 2017

<Wet>은 느리게 움직이는 물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영상으로, 때때로 물거품과 물보라가 튀어 오른다. 작가는 고대부터 전해 온 자연에 대한 은유를 미디어 작업으로 보여준다. 작업 속 자연 물질들은 본질적인 것을 나타낸다. 물은 시작, 진흙은 성장, 식물은 존재, 불은 죽음, 연기는 초월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물은 물질의 최초 형태로 탄생하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가능한 모든 것으로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다.



천경우, Versus #3, chromogenic print, Dibond with Plexiglas facemount, 2007

<Versus>는 카메라 앞의 두 사람의 서로가 몸의 무게를 기댄 채 의지하고, 두 사람의 나이를 합한 숫자의 시간만큼 동안 서로가 밸런스를 맞추어 가며 중심을 유지하게 하는 퍼포먼스 형식의 작품이다. 두 사람이 겹쳐다 떨어졌다는 반복하는 동안 사진에 각각의 색이 뒤섞이며 기록된다. 이 모습은 사람 '인(人)' 자의 형상과 닮아 있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타인과 대항하고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는 인간 관계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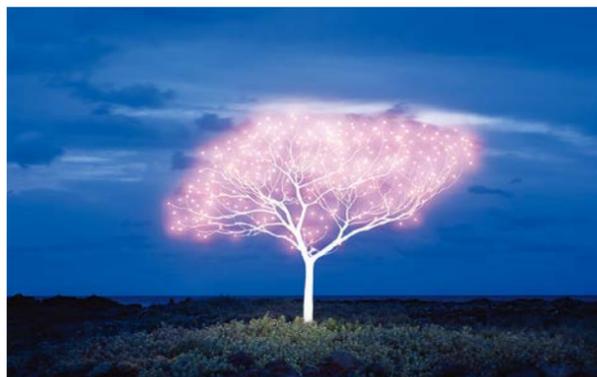
정경자, 지금에 관하여_05, Inkjet Print, 100x100cm, 2012

작가는 도시, 거리, 자연, 인물과 사물들 속에서 사진을 찍는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개인적인 감정을 더해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야기들은 감각을 통해 감지되기 때문에 작가는 감각을 기억의 시작이자 세상을 인식하는 자극으로 본다. 무의식 속에서 해석, 편집된 기억 속에서 재편된 이미지는 가려진 세상의 한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다.



금민정, 숨 쉬는 문, 영상, 2024

작가는 작품으로 제작할 장소를 찾아 해당 공간을 소재로 영상 작품을 만든 후 다시 그 공간에 비디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공간의 벽, 바닥, 문 등 건축적 요소를 조각으로 만들고 그 공간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 경험이나 감정을 시각화한 영상을 만든다. 작품 속 문은 3D 애니메이션으로 실제와 똑같은 문을 만든 후 작가의 숨소리에 맞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정록, Tree of Life 5-1-6, C-type print, 76x130cm, 2013

작가는 바다나 숲 등에서 명상을 하며 그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빛으로 표현해 왔다. 이렇게 빛을 통해 눈앞에 드러난 영적인 신비함은 세계에 대한 작가의 근원적 관심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적인 <생명나무>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바짝 마른 나무 끝에서 착각인지 정말로 존재했는지 모를 작가가 발견한 초록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이때 작가는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이이남, 달항아리 풍경, single-channel video, 152x90x15cm, 2009



김용호, 피안, 디아섹, 300x500cm, 2011

갔다를 것을 알리고 내년이라도 여유롭게 가 볼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진과 관련된 것으로만 꼭 찬 행사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으면 하지만 음악, 미술, 영상 등 다른 장르들을 접목함으로써 작업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꼭 필요하기에, 그저 이런 행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발전을 지원하고 박수를 보낼 따름이다. 살면서 대하는 모든 것을 스승으로 삼고, 넓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건강한 가을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주제전에는 천경우, 정경자, 금민정, 김용호, 루비자 링보그(Lovisa Ringborg), 이이남, 권혜안+폴 카잔더(Paul Kajander), 유현미, 이배경, 박준범, 남민오, 돈 리터(Don Ritter), 이정록을 포함한 13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크로싱 Crossing”을 주제로 기억, 관계, 시공간, 감각, 매체가 교차하는 지점을 자신만의 언어로 보여준다. 여기서 주제인 “크로싱”은 역사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개인적/집단적 기억의 교차와 상호작용으로 해석될 수



전시전경

있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융합과 충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교차, 가상과 현실의 교차, 매체 간의 교차를 의미하며 생태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교차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의미와 맥락을 포괄한다. 작가들은 도시, 거리, 자연, 인물과 사물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개인적인 감정을 더한 미디어 작품들 속에서 시공간 및 기억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관계성을 사유하거나 두 세계의 경계를 통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진실 혹은 내면세계와 잠재의식에 관심을 보이며 모호하고 몽환적인 정신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감정을 탐구한다. 또한 동양 고전 풍경화를 자신만의 개념과 관점을 통해 비와 눈이 내리고 꽃잎이 흩날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디지털 회화로 재탄생시키거나 고대 시대부터 전해 온 물, 불, 식물, 자연에 대한 은유와 나무, 바다나 숲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의 에너지를 빛을 통해 보여준다.

- 감독 손영실



전시전경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별칭인 사진이
진짜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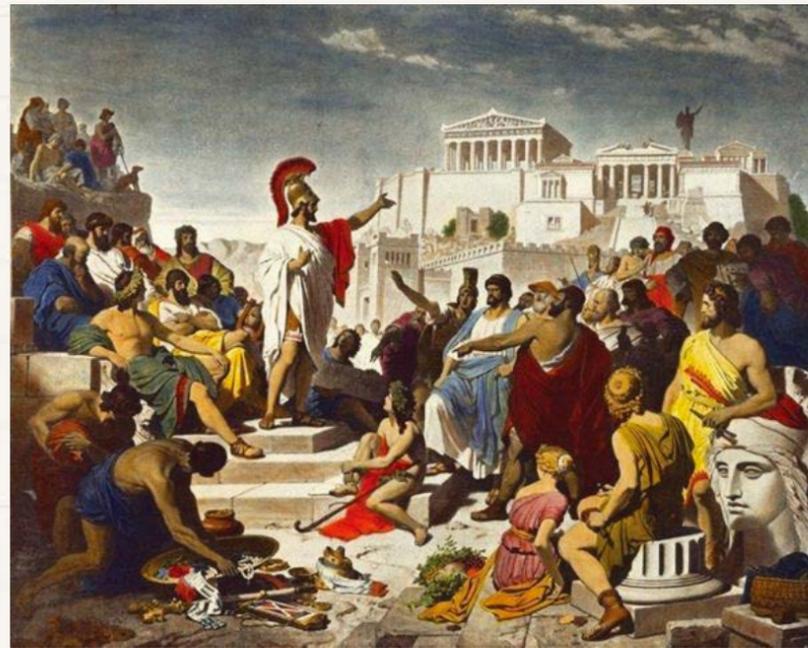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관심은 '정권유지' 부강한 나라는 '뒷전' 백성은 가련해, 독재는 다 그래

글: 사진제공_최승언



고대 그리스 아테나의 민주정치

90년대 중반 필리핀 마닐라를 여행했을 때, 빈민가의 아이들이 쓰레기 산을 뒤져 하루 생계를 수집하고 있었다. 반면 부유층은 높은 철제 담장을 두르고 잔디밭이 깔린 넓은 저택에 헬기까지 갖추고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한국의 부자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가이드 설명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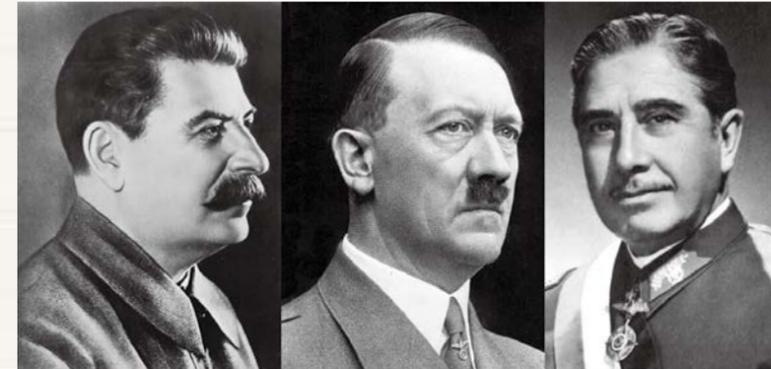
필리핀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피폐한 나라를 보면 대개 독재 권력이 빈민을 착취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독재 권력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교육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 교육을 받으면 국민의 눈이 뜨여 기존 권력에 도전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들을 문맹으로 놔두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사는 것이 부유층이나 기존 권력의 욕심이다. 북한의 권력도 그렇다.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집권자들과 엘리트층은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 남쪽의 드라마를 봤다고 어린 학생들을 총살하는 비극도 주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목적에서 나왔다.

2012년 발간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은 극소수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차지한 착취적인 체제에서는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데 관심이 없고 국가는 쇠퇴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1945년 우리나라가 분단됐을 당시 남북한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70년 만에 남한은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나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있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도태되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따라서 국가는 인재를 육성하여 수 많은 개인이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창조적 파괴를 싫어하는 기존 세력들이 있다. 1965년부터 1997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는 모부투 대통령이였다. 모부투의 정권하에 민생은 파탄나고 국가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지만, 그 자신은 고향에 궁전을 짓고, 콩코드기를 전세 내 유럽을 오갔으며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땅과 성까지 사들였다.



역사속의 독재자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부투 자이르 (지금의 콩고) 대통령(오른쪽)



역성혁명에 성공한 이성계

왜 많은 엘리트층은 포용적 경제 체도를 통해 국가가 번영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설명에 따르면 착취적 경제 체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반드시 쇠퇴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 신생기업이 기존기업의 파이를 빼앗고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19세기 산업혁명은 귀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부리가 흔들리는 큰 변화였다. 새로운 경제권력의 생겨났고 정치권력도 변동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것을 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나 러시아 제국의 절대군주와 귀족들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이처럼 집권자들은 그 권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경제와 정치권력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 친척 간



독재권력 70년의 북한



뮤지컬에 등장한 만적



북한의 아이들

에도 권력을 나누지 못한다. 머느리 민비와 흥선대원군의 권력 다툼이 그러했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이유도 오래도록 권력 독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개인이 있다면 국민들은 저항해야 한다. 국민들의 주권이 와해되고 시간이 지나면 독점권력의 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독재 권력은 사람의 목숨보다 자기의 정권기반을 중시한다. 독재자 푸틴의 한 사람이 전쟁을 결심하면 수십만의 생명이 전쟁터에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북한의 군인들도 전쟁터에서 목숨 걸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독재 권력의 문제점은 이렇게 심각하다. 인류는 이 독재 권력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회에서 독재자를 국외로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도입한 것은 기원전 487년이다. 스스로 왕이 되어 독재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면에

적어 투표하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자가 국외로 추방당하는 방식이었다. 이 도편추방제는 70년간 독재를 막고 민주정을 지키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독재 권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묶어놓았을 정도다. 제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5년 임기를 채운 이는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은 독재 권력의 패해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독점권력이 생기면 공정한 사회 시스템은 죽는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부패했다 말한다. 왕조시대의 권력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부패한 것이다. 다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이 부패한 것인 줄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사회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을 뿐이다. 조선시대의 사농공상 계급사회와 서얼제도는 경제권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심각하게 부패한 사회의 단면과 같다. 어떤



필리핀 빈민가 아이들



독재권력이 낳은 죽음

사회에서도 부조리한 현실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생겨난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같은 사람들이다. 그는 "왕후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도 공경대부가 될수 있다"고 노비들을 선동하여 기존 권력에 도전했다. 물론 진압되고 성공하지 못했다. 만적이 성공했다면 그 역시 왕후장상의 권력 기반을 갖추고 부패해 갔을 것이다. 그가 원했던 것이 경제 정치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자신에게 동조한 자들과 함께 왕후장상의 지위를 누리고자 한 것이었다.

정권 탈취에 실패한 그는 결국 반역자가 되었고 그의 권력 쟁취 시도는 역사책에 만적의 난으로 기록되고 있다. 만적과 달리 고려가 부패했을 때, 이성계라는 새로운 세력이 구태타에 성공해 조선을 세운다. 이성계의 정권 또한 새로운 왕이 기존의 왕을 대신했을 뿐, 경제제도나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왕(王)씨 왕조에서 이(李)씨 왕조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유학자들에게 왕조의 성씨를 바꾸는 역성혁명이 정당하다는 사상적 기반을 부여한 이는 맹자다. 맹자는 백성을 확대하는 정치를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으로 묘사했고, 왕조를 배로 민중을 물로 비유했다. "물이 배를 띄우지만 성난 물이 배를 뒤집는 것처럼 백성이 왕조를 받들어도 왕이 나쁜 정치를 하면 백성이 왕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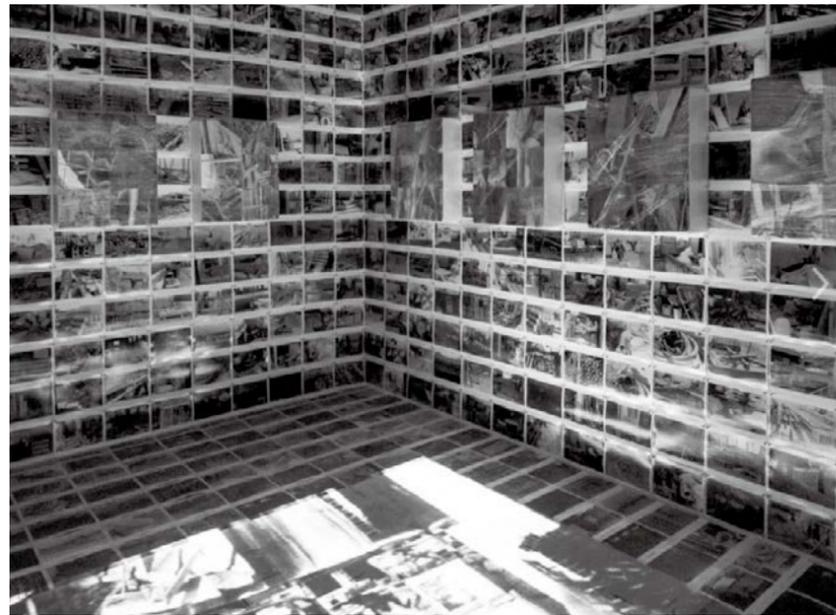
하나라가 부패하여 은나라 탕왕이 천하를 평정하던 얘기가 맹자에 기록되어 있다.

'탕임금께서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시면 서(西夷)가 왜 우리 쪽으로는 빨리 아니 오시나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시면 북(北狄)이 왜 우리 쪽으로는 빨리 아니 오시나 원망하였다. 그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뒷 순번에 놓으시는가? 빨리 오소서, 빨리 오소서.' 폭정에 시달리는 인민들이 탕왕의 군대를 기다리기를 마치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검은 구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과도 같았다. 이 맹자의 기록처럼 압제에 시달리는 지금의 북한의 주민들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어찌 북한만 그러하겠는가. 한국도 권력과 경제권을 가진 자들이 주권자인 국민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부패하고 있다.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자정하는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묻고 있다. "대한민국에 도둑놈이 많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던 허 모 씨의 말에 심히 공감하는 요즘이다.

반 고흐 머물던 카페도... 도심 곳곳에 전시장 2024 아를국제사진제

글: 사진제공_ 조주은(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 교수, 사진예술 아카데미 지도교수)



2024년 "I'm So Happy You Are Here: Japanese Women Photographers from the 1950s to Now"의 전시장면

아를 국제 사진제(Arles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Les Rencontres d'Arles)는 매년 여름 프랑스 남부의 도시 아를(Arles)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사진 축제다.

1970년에 프랑스 사진가인 루시앵 클레르그(Lucien Clergue)와 작가 미셸 투니에(Michel Tournier), 역사가 장 모리스 루즈(Jean-Maurice Rouquette)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사진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사진제는 다양한 사진 전시와 워크숍, 강연, 포토폴리오 리뷰 등으로 구성되며, 신진 작가부터 세계적인 사진작가까지 다양한 사진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아를의 도심 곳곳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교회, 폐쇄된 공장, 역사적인 건물 등 독특한 장소에서 개최되며, 이로 인해 사진 작품과 도시의 역사적 장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를 국제 사진제는 사진 예술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신진 작가들이 이곳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소로써, 사진계에 큰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축제는 도시전체가 사진 전시장으로 사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세계 각국에서 사진 애호가와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24 아를-I'm So Happy2

아를 국제 사진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와 작품 선정

: 아를 사진제는 매년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의 사진 작품을 전시한다. 보도사진, 예술사진,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사진 작업이 선보인다.

2. 신진 작가 발굴

: 아를 사진제는 신진 사진작가에게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특히 포토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전문가들과 만나 자신의 작업을 평가받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사진의 확장성

: 전통적인 사진 전시뿐만 아니라 영상, 설치미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미디어와 융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사진의 확장성과 예술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4. 글로벌 참여

: 아를 사진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전 세계에서 사진작가, 예술가, 큐레이터, 평론가, 사진 애호가들이 참여한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사진계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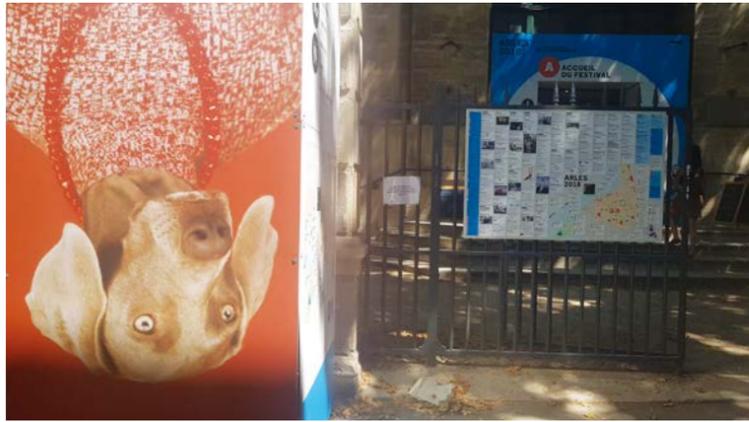
2024년 아를 국제 사진제(Les Rencontres d'Arles)는 "Les Rencontres de la Photographie d'Arles 2024: 전쟁, 자연 및 문화적 습관의 합류"라는 주제로 7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렸으며, 다

양한 해석과 스타일의 전시들이 도시 전역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41개의 전시와 10개의 Grand Arles Express 전시가 포함되어 총 4,200개의 작품이 27개 장소에서 전시되었으며, 전시 공간은 약 13,000m²에 달했으며, 아티스트와 큐레이터가 참석한 저녁 행사, 상영, 원탁 회의, 회의 및 대중 방문을 포함하여 약 80개의 대중 행사가 조직되었고, 196명의 아티스트, 46명의 큐레이터, 70개의 출판사가 아를 도서전에 참여했다.

2024년 사진제는 사진을 통한 인간 존재의 갈등과 회복력을 탐구하는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특히, 일본 여성 사진작가들의 70년간의 작업을 조명한 전시 "I'm So Happy You Are Here: Japanese Women Photographers from the 1950s to Now"가 주목받았다. 이 전시는 일상 생활의 관찰, 일본 사회에서의 여성 역할, 그리고 사진적 형식의 실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크리스티나 데 미델의 작품 "Journey to the Center"는 이주와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를 담아낸 프로젝트로,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이주 여정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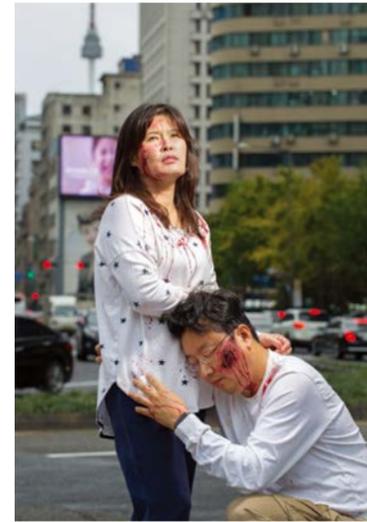
이외에도, BMW Art Makers 프로그램의 수상작인 "The Green Ray" 전시가 성 트로피뎀 수도원에서 열려 빛과 색의 변화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선보였으며,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Discovery Award에서는 젊은 사진작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18 아를 국제사진제



2018 아를 국제사진제



©임안나_불안의 리허설

2024년 사진제에서는 다양한 워크숍, 강연,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뷰 등을 통해 사진가들에게 소통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약 160,000명의 관객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아를 국제 사진제에서 한국 작가 임안나가 포토 폴리오 리뷰 어워드를 수상하며 한국 사진계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는 한국 작가가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성과로, 국내외 사진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안나 작가는 수상 이후 이 시리즈를 이듬해 아를 사진제에서 전시하여 더욱 주목받았으며, 이는 한국 사진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임안나 작가의 수상작 '불안의 리허설'(Rehearsal of Anxiety)은 한국 사회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느끼는 긴장과 불안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시리즈는 매체 보도를 통해 북한 핵 이슈에 직면한 한국인들의 심리적 반응을 시각적으로 풀어냈으며,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탐구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성과는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사진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깊이 다루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임안나 작가의 성공은 한국 사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한국 예술이 국제적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5년 아를 국제 사진제(Les Rencontres d'Arles)는 7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진제는 56번째 에디션으로, 다양한 전시와 함께 Discovery Award를 통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상은 César González-Aguirre가 큐레이터로 참여하며, 젊은 작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며, 15,000유로의 상금과 함께 작품이 아를 사진제의 컬렉션에 포함된다.

2025년의 전시 프로그램은 글로벌 이슈와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사진 작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진제는 단순히 사진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큐레이터, 갤러리, 예술 기관들이 협력하

여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사진이 현재 사회에서 갖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Discovery Award의 César González-Aguirre는 멕시코 출신의 독립 큐레이터로, 기억과 욕망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멕시코 시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며, 다양한 전시 기획과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독창적인 큐레이션을 선보였다.

그의 주요 경력에는 Centro de la Imagen에서 수석 큐레이터로 근무한 시절이 포함되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많은 주목받는 전시들을 기획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The Ballad of



반 고흐의 '카페 테라스에서의 밤'의 실제 배경인 카페



반 고흐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에서도 아를 전시가 이루어진다.

Sexual Dependency"(Nan Goldin, 2019), "Pirates on the Boulevard"(Agustín Martínez Castro, 2018), 그리고 "Positive Negative"(2022)가 있다. 또한, 그는 멕시코의 퀴어 사진을 중심으로 다루는 독립 공간 Drama의 디렉터로서 활동하며,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그의 큐레이션 스타일은 지역적 맥락과 글로벌 이슈를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며, 특히 사진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를 국제 사진제를 비롯하여 최근의 국제 사진제와 한국 사진제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주제와 특징이 두드러진다. 주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이슈와 변화에 대한 탐구

: 국제적인 사진제와 한국 사진제 모두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사진을 통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를 국제 사진제 2024에서는 이주, 재난, 환경 변화 등의 주제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재건과 복구를 다룬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한국에서도 환경,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가 사진전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후 위기와 사진" 전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다.

2. 신진 작가 발굴과 지원

: 국제적으로 아를 사진제는 Discovery Awar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한국에서도 대한민국 사진대전과 같은 주요 공모전에서 신진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젊은 사진가들이 사회적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3.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

: 사진제들은 점점 더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 형식과 융합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아를 사진제는 다양한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해 사진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산 비엔날레와 같은 대형 예술 행사에서도 사진과 다른 매체의 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4. 공간과 장소의 활용

: 국제 사진제는 독특한 공간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특징인데, 아를 사진제는 아를의 역사적인 장소와 산업 유산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사진제들도 최근 들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나 자연 환경과 연계된 전시를 시도하면서 장소의 맥락을 살린 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들은 사진이 단순한 이미지 예술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시각적 실험을 통해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를(Arles)은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머물렀던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그의 삶과 예술에 깊은 관련이 있는 장소다. 이와 더불어 아를 주변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여행지가 많다.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 "카페 테라스에서의 밤"의 실제 배경이 된 장소인 반 고흐의 카페 테라스는 지금도 그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당시의 분위기를



레 보 드 프로방스

느낄 수 있으며 아를에서 가까운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 위치한 생폴 드 모솔 수도원은 반 고흐가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여기에서 그는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걸작을 남겼다. 현재 방문객들은 그의 방과 그림에 영감을 준 정원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도시인 아를은 로마 원형 경기장 (Arènes d'Arles), 로마 극장 (Théâtre Antique), 중세 시대에 지어진 수도원은 아름다운 경관과 고딕 건축 양식으로도 유명하다.

반 고흐도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 클루니 수도원 (Abbaye de Montmajour)이 있으며, 자연 보호구역으로, 아름다운 산과 들판,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풍경이 특징인 알필 언덕 (Les Alpilles), 고대 유적지와 그림 같은 마을 풍경으로도 인기가 많은 생레미 드 프로방스, 로마 시대의 거대한 수로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

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구조물인 폰 뒤 가르 (Pont du Gard)이 있다.

절벽 위에 위치한 중세 마을로, 돌로 만든 집들과 요새로 유명하며 반 고흐의 작품에도 영감을 준 레 보 드 프로방스 (Les Baux-de-Provence)는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아를 국제 사진제와 더불어 꼭 가볼 곳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이렇듯 아를과 그 주변 지역은 역사적, 예술적, 자연적 매력이 풍부하게 어우러진 장소로, 아를 국제 사진제가 열리는 의미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최되는 아를 사진제는 예술과 역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사진 예술의 새로운 경향과 현대적 메시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 대한민국예술축전 개최

대상 문체부장관상에 부산 박재진 작가 선정



대상 박재진(사진 왼쪽)과 조강훈 회장(사진 오른쪽)



사진부문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최우수상 김정혜(사진 오른쪽)와 최차열 부이사장(사진 왼쪽)



시상식 후 수상자들 단체기념촬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에서 주관한 전국 종합예술경연인 2024 대한민국 예술축전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었다. 국악, 사진, 영화 등 3개 부문 지역대표로 선정된 16개 광역시·도 대표가 본선 경쟁을 펼쳤다.

이번 본선 심사결과 사진 부문 대상은 부산대표 박재진 작가의 작품인 '우호의 나라'가 선정되어 영예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경남대표 김정혜 작가의 '싸웠노래! 이겼노래! 전진하라!', 우수상은 인천대표 최종일 작가의 '다비식', 장려상은 충남대표 이기준 작가의 '기지사 줄다리기'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별상은 경남지사상에 서울대표 김용진 작가의 '노동자의 삶', 경남도의회의장상에 전남 김미나 작가의 '지상 최대 물싸움', 김해시장상은 대구 추나영 작가 작품인 '인형의 꿈', 김해시의회의장상은 경기도 강철순 작가의 '중독, 역습 그리고 해방'이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인 부산의 박재진 작가는 "생각하지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열렬히 감사하며 앞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협회의 이름을 높이고 사진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양천디지털포토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전

관객과 소통, 역내 사진예술 저변 확장

지난 9월 24일, 양천디지털포토클럽(YDC)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협회 교육전문위원회 문제민 위원장이 양천구를 기반으로 설립한 이 클럽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많은 신진 작가를 육성하며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일원으로 이끌어왔다. YDC는 사진예술에 대한 높은 열정과 교육을 통해 협회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지역 내에서 사진 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양천디지털포토클럽이 쌓아온 20년간의 성과를 기념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회원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클럽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진을 통해 표현된 다양한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번 기념 전시는 클럽 회원들에게 작품을 공개하고 일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수찬 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이성록 이사, 박국인 강서지부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20년의 성취를 축하했다. 양천디지털포토클럽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사진예술의 발전과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제20회ycd/사연반사진작품전시회 <2024.9.24~9.28>



테이프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문제민 위원장, 내빈, 양천디지털포토클럽 회원들

회비납부 안내 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 ·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문의 및 회비담당 : 재무팀장 조윤숙(02-2655-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산악사진분과위원회 워크숍 역새밭 오름 촬영하며 제주도 가을 만끽



©박곡희 부위원장-가을 한라산 단풍

지난 10월 11일~13일 제주도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산악사진분과위원회 워크숍 및 촬영회가 있었다. 제주공항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이성길 위원장님의 리딩으로 역새밭 촬영으로 첫날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구름으로 인해 한라산은 얼굴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빛을 받은 붉은빛의 역새에 환호하며 바람과 역새의 감흥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다랑쉬오름에서 보는 새끼다랑쉬오름, 아진다랑쉬오름, 소월낭악(小月朗岳) 등 여러 별칭이 있다. 높이 198m, 둘레 1,454m, 총면적 16만 4072㎡ 규모의 기생 화산으로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의 차는 58m이다.

오름 정상부에 둥그런 모양의 분화구가 있는데, 둘레가 약 600m인 분화구 안에 넓은 초지가 있고 초지 한구석에 묘 1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잡목 숲을 제외하고는 오름의 비탈면 전체가 풀밭으로 이루어졌다. 서쪽 비탈면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따라 정상까지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다.

둘째 날 새벽 큰다랑쉬오름에서 아끈다랑쉬오름을 배경으로 아침빛에 물든 들판과 빛 내림을 담고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워크숍(삼양 바다향기 펜션)을 가졌다. 강사로는 이은솔 시인의 "디카시"강의로 그동안 시와 사진을 곁들여 작품을 만들어 보기는



©박광미-한라산



©강희찬



단체기념촬영-하도리 해변



©이성길 위원장-한라산



©정형식 부위원장-다랑쉬오름정상

하였지만 강의를 들으며 사진의 시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제주도 이창훈 지회장님이 친히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그리고 이번 일정 중 특별촬영으로 하도리 해변에서 위원장님의 지휘아래 "해녀촬영"을 하였다. 물질을 하느라 피곤하였을 텐데도 해맑은 웃음으로 포즈도 취해 주시고 채취한 어획물을 보여 주시기도 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오늘 해녀들이 잡아온 바다향 가득한 볼소리를 먹으며 내일 일정과 내년 일정을 계획하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셋째 날, 제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한라산 영실계곡 단풍촬영을 위해 새벽 일찍 숙소를 나섰다. 새벽공기가 제법 추위를 느끼게 했지만 한라산에 오르는 동안 스물 땀이 나기 시작했다.

포인트에 이르러 아침빛을 기다리며 여기저기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담기에 바빴다.

영실계곡은 병풍바위와 오백나한(오백장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골짜기 서쪽으로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거대한 기암절벽인 병풍바위가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1,200여 개의 돌기둥이 석벽처럼 가지런히 붙어 있어 마치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 하여 병풍바위라고 부른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여름철 큰 비가 내리면 수직의 병풍바위 사이로 폭포가 형성되어 장관을 이룬다.

빛이 스며든 영실계곡은 초록, 노랑, 빨강이 뒤섞여 한껏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고, 우리는 한라산의 가을 품속에서 한참을 헤매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산하였다.

그렇게 2박 3일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이성길 산악분과위원장님의 리딩과 분과위원들 서로의 배려로 다음 출사를 기약하며 모두에게 제주도에서의 감흥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다.



©이정록_아끈다랑쉬 빛내림



©방성공

http://dongilframe.alltheway.kr/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하드락액자(광학필름) •디아섹액자(아크릴)
 •메탈액자(알루미늄판)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특수사진분과위원회 강원도 평창 정기촬영회



발왕산 정상에서 가을 풍경 촬영을 하는 위원들



은하수 촬영을 하는 위원들



은하수 촬영작

특수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채석근)에서는 2024년 10월 5(토)부터 강원도 평창 프리포즈 펜션에서 1박2일 동안 정기촬영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김서윤, 김춘도, 박석관, 손석운, 신경애, 이재수, 이흥기, 장창근 이사를 비롯한 40여 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하여, 특수사진 촬영기법, 장노출 및 은하수, 별 돌리기 등의 야간촬영을 하였다. 특히 은하수 촬영은 진광준 부위원장, 별 돌리기는 채석근 위원장의 특강으로 조리개, ISO, 타이머리리즈 사용을 통한 노출의 조정과 여러 촬영 기법도 공유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뜻깊은 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5일(토) 오후 5시부터 석식 바베큐를 구우면서 회원들 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한 화합의 시간에는, 경품추첨, 채석근 위원장과 이재수 이사의 하모니카 합주가 이어지며 위원들 간에 더욱 화기애애한 저녁 만찬 시간이 되었으며, 특강과 함께 은하수와 별 돌리기 사진을 촬영하느라 밤12시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촘촘한 행사가 이어졌다.

6일(일) 아침에는 다래 한정식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유유히 멋과 싱그러운 자연의 정취를 감상하면서 발왕산 정상으로 이동해 탁 트인 전망 속 멋진 가을 단풍사진을 찍었고, 하산하여 모나옹 평 식당에서 한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는 단체사진 촬영을 끝으로 해산하였다.



발왕산 케이블카 탑승 전경



단체기념촬영

이번 정기출사를 통하여 특수사진분과 회원들의 뜨거운 사진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특수사진을 위한 출사 방법의 제시와 분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의와 협의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이번 촬영회는 특수분과 회원들의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는 유익한 출사가 되었고, 연말 또는 신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1박2일 동안의 촬영회를 마쳤다.

신비의섬 제주

제주도 촬영 가이드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촬영 안내

제주도 촬영 : 계절별 하루 10시간 기준 차량 5인승 4명까지 포인트 안내 기를값 포함 20만 원
 여름철 : 6월~9월 오전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일몰까지 (하루 시간이 긴 관계로)
 촬영 오실 때 : 삼각대 4대까지 무료 대여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 4명 이상 차량 11인승(30만 원)
 제주도 장노출 촬영 및 스토리 작업 (초보자 및 전문가 별도 촬영 지도) "촬영 전문 지도위원"

갤러리 예지향 '2024 포토피아 나눔전' 11월 개최 지역사회 문화발전 위해 '수익금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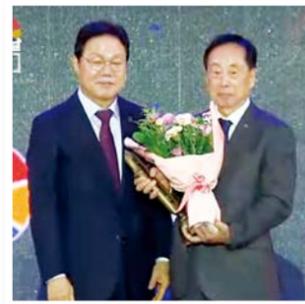


2023년 기부금전달식

갤러리 예지향은 2023년 11월 개관하였다. 이후 개관기념으로 이순희 관장과 박일윤 갤러리 운영위원장(사단법인 한국예총 의왕지회장)이 함께 부부 나눔전을 하여 그 수익금을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 의왕시(김성제 시장)와 (사)한국예총 의왕지회(박일윤 회장)에 기부하였다.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매월 1인씩 지역사회 예술인들이 개인전을 하여 9회의 전시회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 2024년 11월에도 개관 기념일에 맞추어 갤러리 예지향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며 [PHOTOPIA 포토피아] 소속 작가인 5인(박근희, 채금순, 이순희, 윤수희, 전채영) 그리고 갤러리 예지향 자문위원 및 초대작가인 조 정 작가(제29대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역임)와 박일윤 (사)한국예총 의왕지회 회장(갤러리 예지향 운영위원장)이 함께 2024년 Photopia 나눔전이 2024년 11월 6일 ~ 12월 31일, 갤러리 예지향에서 개최됩니다.

박용덕 운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7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경상남도 문화상'은 경남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373명을 배출한 문화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

이다. 올해 문화상 수상자에는 ▲(학술·교육 부문) 이성모 김달진문학관장 ▲(문학 부문) 주강홍 시인 ▲(조형예술 부문) 박용덕 사진작가 ▲(공연예술 부문) 고능석 (사)극단 현장 대표 ▲(문화·언론 부문) 이상연 (취경한국리아 대표 ▲(체육 부문) 안희준 통영시 체육회장 ▲(청년 부문) 장종도 경남연극협회 사무처장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조형예술 부문 박용덕 사진작가는 본 협회 운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2년간 경남지역 사진예술 무료 교육을 통해 사진예술 인구 저변을 확대(300여 명)했고, 경남지역 사진예술인 발굴 및 마산 발전의 기록물인 마산 사진사(50년)를 발간해 마산 사진 역사를 총정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경남의 문화와 예술,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의 노고에 도민들과 함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경남의 품격 있는 문화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문화상 시상식은 지난 10월 14일 제41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 때 도청 광장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출처]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작성자 Robert Kim

본 협회 서규원 운영자문위원 제44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수상



본 협회 서규원(제22. 24대 부이사장 역임) 운영자문위원이 2024년 10월 4일 제44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예술 I (공간예술) 부문을 수상하였다. 본회 입회 47년 경력의 회원으로서 현재까지도 활발한 사진 창작 활동을 벌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평생 모은 희귀 사진 자료를 대구광역시에 기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진 부문 원로 예술인 구술 기록화 사업 작가로 선정(2023) 되어 대구사진사를 집약 정리한 구술 자료를 대구광역시에서 영구 보관용으로 녹화 제작하는 데 참여하는 등 지금도 지역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평가 받았다. 본회 대구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규원 운영자문위원은 매일어린이사진공모전 첫 입상(1968)을 시작으로 국내 공모전 113점. 또 제2회 마카오국제전 최고상인 베스트 세트상(1983)을 비롯한 국제 공모전 366점. 합계 총 479점을 입상 입선한 바 있다. 또 대구문화예술회관 초대 원로작가 회고전(2016) 및 대한민국사진축전 초대전(2018) 등 개인전도 총 6회 개최하였다. 그리고



50여 년간 꾸준히 창작한 리얼리즘 생활 사진을 10개 분야로 나눠 모여서 서규원 사진집 <50년 사진여로 삶>을 발간(2016) 하는 등 고령인 현 재도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어서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진 활동 60년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사진으로 엮은 자서전 <서규원>을 발간(2024)하기도 하였다.

2024년 전국 사진강좌 안내(11월)

- 파주전국사진강좌 파주지부 11월 16일(토) 오후1시-5시 운영행복센터 다목적홀
- 창원전국사진강좌 창원지부 11월 17일(일) 오후1시-5시 창원문화원 대강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영태(광주)이사 부친별세 별세 2024년 10월 10일 발인 2024년 10월 12일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4년 10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69,698,685
- 계 : 1,179,588,371(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02,100,000 (3,021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④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⑤ 2021년 계 : 27,700,000
- ⑥ 2022년 계 : 32,200,000
- ⑦ 2023년 계 : 16,900,000
- ⑧ 2024년 계 : 18,900,000
- ▷ 2024년01월(50명) : 5,000,000
- ▷ 2024년03월(36명) : 3,600,000
- ▷ 2024년05월(14명) : 1,400,000

- ▷ 2024년07월(50명) : 5,000,000
- ▷ 2024년09월(39명) : 3,900,000

○기타 계 : 79,486,905

-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24,834 (30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25,873,851 (30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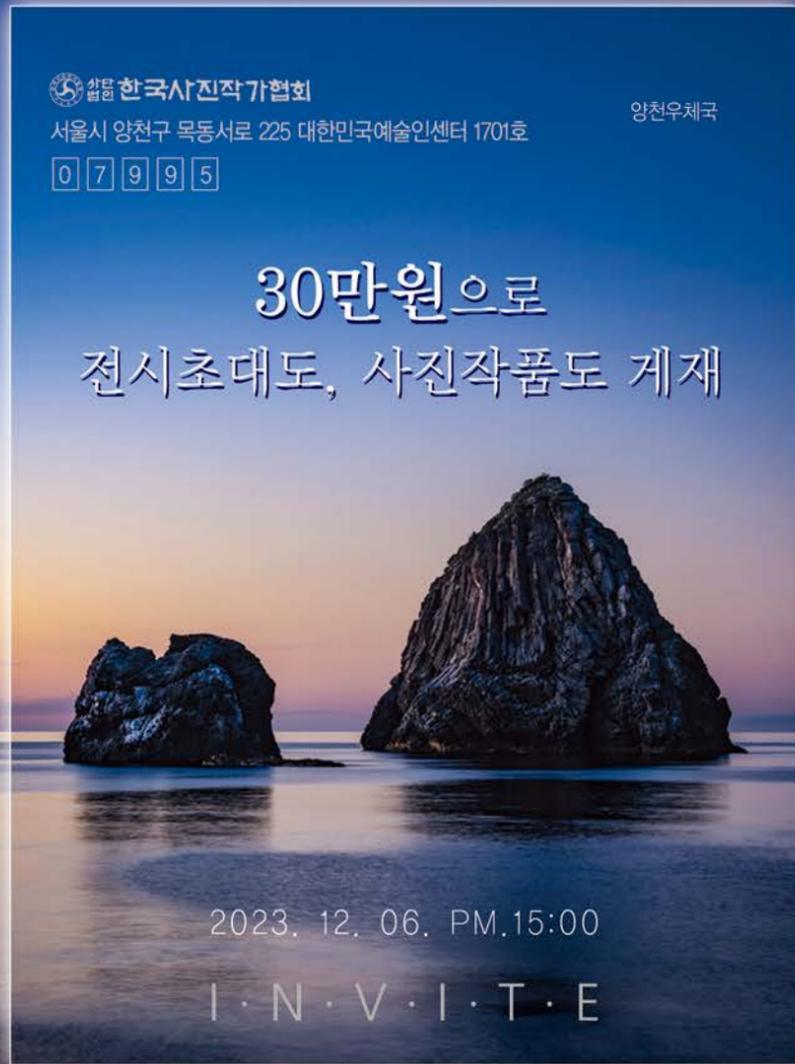
○운용 계 : 400,000,000 (b)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79,588,371 (a-b)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씨

김애란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2일(월) ~ 12월 13일(금)
 전시장소 국회아트갤러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오픈 2024년 12월 2일(월) 17시 30분
 전시작가 김애란 (010-7997-6889)



십여 년 전 '야채의 초상'을 시작으로 '야채의 유통'을 사진으로 작업하여 발표하였고 오랜 시간 야채를 탐구하다가 그 의식이 확장되어 생명의 시작인 씨앗으로 관심이 전이되었다. <중략>

이 작업은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씨앗을 통해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마이크로렌즈를 최단 거리로 접근하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였고, 씨앗을 홀로 세상에 떨어져 비바람과 추위에 맞서는 사물로 인식하여 개별적 존재로 촬영하였다. 또한 매크로 작업은 더 정밀한 촬영을 위하여 실내에서 인공조명으로 작업하였다. 씨앗을 작업하며 작은 생명에서 무한한 기운을 느끼며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기에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자연에 마음을 엮다

김정희 사진전



새벽 바다에 나가 보았다. 먼 곳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빛의 속도에 따라 어둠에 잠겨 있던 무채색의 바다가 서서히 파랑으로 변해가고, 파도는 바람을 타고 해안까지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며 사멸한다. 그 끝없는 생성과 소멸이 덧없어서 더욱 애뜻하고 아름답다. <중략>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자연이다. 바다, 숲, 나무, 꽃.... 특별한 것 없는 무심한 풍경에 나만의 무늬를 새기는 작업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답지만 그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나만의 생각과 감성을 담아 다양한 울림을 가진 목소리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4년 12월 7일(토) ~ 12월 10일(화)
 전시장소 울진 연호문화센터
 전시작가 김정희

천년의 숨결

송진용 사진전



깊은 산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힘겹게 오르다 혹여 아름다 리 정자나무를 만나거나 커다란 바위를 마주하면 힘겹게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님이 생각이 난다. <중략>

내가 천년을 간직한 불상과 마애불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선조들의 염원이 투사된 혼의 정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처럼 나의 사진 작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소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천년의 시간을 담는다는 나의 새벽길 발걸음으로 이어진다. 인간 삶이 흔적을 남겨봐야 백 년도 못 버티는 것이겠지만 천년의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는 불교미술과 역사를 기록한다는 나의 긍지는 부처님처럼 천년의 역사로 남길 바라며, 불교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 12월 3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이즈갤러리 2F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52-1 / Tel. 02-736-6669)
전시작가 송진용(010-4787-3388)



노년의 초상, A portrait of oldage

정민순 개인전

오랜 시간 그들의 공간과 세월의 흔적을 찾았지만, 나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이처럼 긴 이야기로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그들은 진실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우며 지혜, 인격의 강인함, 평생의 꿈을 암시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완벽한 피사체였습니다. <중략>

가까이서 그들을 파인더로 바라볼 때면 표정에는 활기가, 주름에는 삶의 경험이, 거친 손에는 고담함이. 반짝이는 눈에는 삶의 지혜가 깊이감으로 읽히며 나도 모르게 그들을 찾을 때마다 감정이 더해졌습니다. 나의 사진 작업 '노년의 초상'을 통해 내가 사진적 표현으로 이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펼쳐려고 긴 시간 노력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 12월 4일(수)
전시장소 의정부 문화재단
전시오픈 2024년 11월 28일(목) 오후3시
전시작가 정민순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를 만나다

정연수 개인전

어느 여름날, 집 주변을 산책하다 작은 생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숲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청소년문화센터 뒤편에 그리 크지도 않은 작은 풀밭 정도에 지나지 않는 공원인데 그곳에 곤충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이 어떨고 생태계가 어떨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집 가까운 곳이고 멀리 가지도 않아도 내가 쉽게 찍을 수 있는 피사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차츰 시간이 지나며 곤충의 매력에 빠져들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찍게 되었습니다. <중략>



곤충은 인간보다도 훨씬 먼저 지구에 등장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곤충 화석은 약 3억 8천만년 전 고생대 데본기의 톱토기류 화석인데 곤충의 종류는 모두 100만 종이 넘게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종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곤충을 '버려지'라고 하지만 곤충은 지금도 인간보다 훨씬 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4년 12월 9일(월) ~ 12월 14일(토)
전시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갤러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개 전 식 2024년 12월 9일(월) 오후5시
전시작가 정연수(010-4335-9463)



행복한 인연

이기준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11월 1일(금) ~ 11월 12일(화)
전시장소 예산군청 민원실
전시오픈 2024년 11월 1일 오후3시
전시작가 이기준(010-7196-8821)

73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과 맺은 행복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행복한 인연은 물총새의 순간을 통해 행복한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를 위해 3년 동안 집에서 3시간 거리인 전남 담양으로 출사를 다녔습니다.

3시간 동안 이동시간과 계곡에서 촬영하는 시간동안 내내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며 제가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순천포토스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 11월 27일(수)
 전시장소 순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전남 순천시 삼산로 16 / 관람시간 09:00~18:00)
 작가와의 만남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4시
 참여작가 김 현, 노연섭, 문경란, 박공덕, 박오복, 안광자, 이기봉, 이현주, 이홍석, 장미희, 조은미, 조희철, 주우신, 홍광구, 함춘동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푸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이 마음 출렁이게 하는 시간입니다.
 스무살 청년이 된 순천포토스 회원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ODY MASK_ 불완전한 상상

양재문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11월 30일(토)
 (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비움갤러리(전화. 0507-1486-0222)
 전시작가 양재문(010-2337-6009)

2025년 11월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필동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사진가 양재문의 "BODY MASK" 불완전한 상상展이 열린다. 한국의 전통춤을 몽환적으로 표현해온 작가로 알려진 그가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바다 마스크 작업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작가의 이중성에 대한 고해적인 전시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세월의 미학_10년의 동행

단국대학교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연구회 회원전



전시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 11월 18일(월)
 전시장소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6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4-1, 4층 / 0507-1478-9969)
 전시오픈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4시
 전시작가 정성만, 박현기, 박향숙, 김기홍, 김영균, 김종성, 김지수, 노영옥, 류남순, 서춘희, 이춘희, 전은주, 정선영, 최희자, 황용엽

세월이 흐르며 남긴 흔적들은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아련하며, 때로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세월의 미학을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18명의 작가들이 각자 선 보이는 작품들은 저마다의 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속에는 작가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끊임 없는 도전이 녹아 있다. <작가노트 중에서>

2024 Photopia(포토피아) 나눔전

전시일시 2024년 11월 6일(수) ~ 12월 31일(화)
 (관람시간 A.M.11:00~P.M.17:00)
 전시장소 Gallery 예-지-향 (경기도 의왕시 천우물1길 15)
 작가와의 만남 2024년 11월 11일(월) 오후3시
 전시작가 조 정, 박일윤, 박균희, 윤수희, 이순희, 전채영, 채금순
 전시문의 010-5228-0972

2023년 11월 갤러리 예지향을 개관하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부부 나눔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제2회 나눔전을 기획하면서 사진동호회(포토피아)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 고향 ; 회화적으로 보다

성주희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5일(목) ~ 12월 10일(화)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1층 전시실(상상숲)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전시작가 성주희(010-5627-1341)

이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들이 사진이라는 예술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감성을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 또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곳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리라 생각해 본다. <작가노트 중에서>

마음으로 보는 세상

전성진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28일(토) ~ 12월 31일(화)
 (관람시간 (토)오후3시부터, 09:00~18:00)
 전시장소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전시장 미담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전시작가 전성진(010-8721-3929)

잉태에서 미륵 세계까지를 여러 단계로 분리해서 전시하려합니다. 전생에 불법으로 만난 인연으로, 금생에서 또 다시 불법 인연으로 공덕사진을 불법으로 표현, 또한 불법으로 회향 하게됨을 나타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제9회 문경관광사진전국공모전

2024.11.4.~11.22.(도착분)

출 품

- 주 제 : 문경을 상징할 수 있는 자연경관, 전통문화, 축제, 공연, 관광명소, 문경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경 등
- 작품내용 : 문경의 전통문화 예술과 천혜의 비경, 관광자원을 소재로한 미발표 자유작품
- 접수처 : 경북 문경시 신흥로 103 문화아트홀 2층내 한국사진작가협회 문경지부
- 접수기간 : 2024.11.4.~11.22.(도착분)
- 응모자격 : 전국사진동호인
- 작품규격 : 11"×14", 컬러 테두리 불가(흑백불가/장정불요)
- 출 품 료 : 2만원
- 출 품 수 : 1인당 5점 이내
- 출품요령 : 제목, 촬영지, 촬영일,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도로명주소(작품 뒷면에 출품표부착)
- 알림사항
 - 국내외의 타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며, 표절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
 - 2022.1.1. 부터 2024년 공모전 출품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
 -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있음
 - 수상자는 심사 발표후 3일 이내 작품원본 파일4,000×3,000픽셀이상, 해상력 250dpi 이상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을 취소함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함
 - 지적재산권침해 작품, 초상권, 타인의 명예훼손, 합성사진,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으로 판명된 작품은 상권이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입선 이상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문경시에서 15년간 인쇄출판, 홍보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작품은 반환치 않음.
 - 컴퓨터그래픽 또는 합성사진으로 판명될 경우 상권취소 및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동일,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되었을 경우, 상권취소 및 회원은 징계, 사진작가협회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작품의 초상권 및 제반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입상 및 입선작은 별도의 초상권에 대한 책임소재의 별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함.
 - 가작 이상 입상자는 시상식 참석 의무가 있음
 - 상금은 원천세 및 금융수수료 공제 후 지급함
 - 공모 전 시상 전시등 세부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 결정에 의함

심 사

- 일 시 : 2024.11.27. ●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 발 표 : 공개심사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시상 및 전시

- 금상(1점) : 문경시장 상장 및 상금 3,000,000원 ● 은상(2점) : 문경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500,000원
- 동상(3점) : 대구일보사장 상장 및 상금 각 300,000원
- 가작(5점) : (사) 한국예총 문경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 입선(출품수의 20% 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문경시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0,000원

● 시상식 : 2024.12.11.(수) 15:00 예정 ● 장소 : 문경시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전시회 : 2024.12.11.~13(3일간)

주최 : 문 경 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문경지부, 대구일보
 후원 : 문경시의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경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2024 대전 영시축제

2024 DAEJEON ZERO O'CLOCK FESTIVAL

2024년 대전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

접수기간 | 2024. 10. 14.(월) ~ 11. 8.(금) 18시까지

2024. 8. 9.(금)~17.(토) 매일 14:00~00:00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등 원도심 일원

※ 공휴일 제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입회접수인정)

공모주제

- 대전 0시 축제 부문
 - 축제기간 내 촬영한 사진
- 자유주제 부문
 - 대전의 명소, 자연경관, 야간경관, 주요축제 등 대전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미발표 사진 작품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4일(월) ~ 11월 8일(금) 18시까지
 ※ 공휴일 제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참가대상 : 제한없음 ※ 1인당 5점 이내(출품료 없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 대전예술가의집 516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042-254-3280), photo3280@hanmail.net

■ 시상내용 총 68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 등 입상작수는 변경될 수 있음)

0시 축제부문

구분	작품 수	시상내용	상 장
총	34점		
금상	1점	상장 및 작품매입비 200만원	대전광역시시장상
은상	2점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100만원	대전광역시시장상
동상	3점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50만원	대전광역시시장상
가작	5점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20만원	대전시의회의장상
입선	23점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10만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상

출품요령

- 제출항목 : 출품사진, 출품신청서, 출품작품 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저작권사용동의서, 항공사진촬영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작품사진 뒷면에 출품작품 정보(붙임2)를 부착하여 출품신청서(붙임1)와 함께 제출
- 개인정보 동의서 등(붙임3) 작성, 항공사진촬영허가서 첨부(해당자) - 출품정보 : 출품자, 작품명, 촬영일시, 촬영장소,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 ※ 기타사항은 출품 시 유의사항을 확인, 필요서류 미제출시 상권 취소될 수 있음.
- ※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지회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고시공고) [2024 대전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참고
-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민, 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비롯하여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 입상작(금상, 은상, 동상, 가작)은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시 상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시상

- 심사 및 발표 : 2024년 11월 22일(금) ~ 23일(토) 예정 (사진작가협회대전지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및 전시 : 2024년 11월말 예정 / 장소미정 ※ 추진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사항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TEL. 042-254-3280 ● 출품 및 공모전 유의사항 (대전광역시지회 홈페이지 http://djphoto.co.kr)
- 공지사항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출품자는 출품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최 : 대전광역시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2023년도 금상





제32회 의정부 회룡전국 사진공모전

The 32th Hoeryong National
Photograph Contest

출품 마감 2024. 11. 8 (소인유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있음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x 14" (규격엄수, 장정불요)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출품표 작성
작품명, 주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기재하여 부착요망

출품수 · 출품료

4점 이내 / 1인당 20,000원

접수처 및 연락처

11623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80번길 18 의정부 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010 2339-4072

심사일시 · 심사장소

11월 중순 / 미정

전시 · 시상식

추후 통보

구분	인원	시상 내역
금상	1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상	2명	의정부예총회장 상장
동상	3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가작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장려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입선	총 출품수의 20% 내외 (입상작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장 상장

- 입상 · 입선된 작품은 당 지부에 저작권 사용권이 있으며,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진다.
- 기발표작,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 입선한 경우 상권취소와 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따라 조치함.
- 낙선작은 반송하지 않으며, 상장은 종료후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함.(국내)
- 입선 이상의 수상자는 발표후 7일 이내에 원본파일을 hJ19992002@naver.com으로 보낼것.

제19회 군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4년 12월 2일(월)

소인유효

(입회점수 있음)

응모요령

출품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외국인 환영)

출품료 : 1인당 2만원

출품수 :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

-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군산사계절, 고군산 열도, 은파호수공원 풍경, 금강하구연, 금강철새, 새만금, 동백대교, 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 군산의 전통문화 유적지, 주민의 생활상, 지역특산물 및 각종행사, 스포츠 행사 모습

- 군산의 심볼마크, 시조(갈매기), 시화(동백), 시목(은행나무)를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 11" X 14" 컬러 및 흑백 (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제외)

접수처 : 군산시 죽동1길 6-3 (수송동) 피렌체빌딩2F (사)사협군산지부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 촬영장소를 필히 명기할 것

심사 및 전시

접수기간 : 2024년 12월 2일(월) 소인유효

심사일시 : 추후통보

심사장소 :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 추후통보

전시기간 : 2024년 12월 20일(금)~31일(화)

전시장소 :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 군산시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군산시의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금 각 10만원

입선 40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은동가작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 bebe9006@naver.com

제39회

군산전국 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4년 12월 2일(월) 소인유효

응모요령

출품자격: 전국 사진애호가(외국인 환영)
참가비: 1인당 2만원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작품내용: 미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11" X 14" 컬러 및 흑백
(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 제외)
접수기간: 2024년 12월 2일(월) 소인유효
접수처: 군산시 축동1길 6-3(수송동) 피렌체빌딩2F
010-3676-1119, 010-4610-9007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심사 및 전시·시상

심사일시: 추후 통보
심사장소: 군산 영광여고 강당
심사발표: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http://pask.net>)
전시기간: 2024년 12월 20일(금)~31일(화)
전시장소: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유의사항

- 입상및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입회점수인정함.
- 동일작품이나유사작으로판명시낙선및상권취소됨.
- 금은동기작수상작은 시상식때의무적으로참석함.
- 입상,입선작품의저작권은저작자에게있으며,
주최측은수상작에한하여향후5년간복제,배포,
전시,공중송신에사용할수있음.
- 입상(선)작품은출품파일을7일안에제출해야함
(미제출시상권취소).
- 출품된작품은반환하지않음.
- E-MAIL : bebe9006@naver.com
- 문의 :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시상내역

- 금상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상상금 100만원
- 은상2점: 군산시장상장및상금각30만원
- 동상3점: (사)한국예총군산지회장상상금각20만원
- 기작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군산지부장상장및부상
- 장려상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군산지부장상장
-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군산지부장상장
(출품작의 20%이내)

- 주최주관_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 후 원_ 군산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군산지회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500



- 정품무한잉크
- 4x6 2,100장 출력가능 (엡손자료(L8050, L18050))
- Wifi
-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원목액자 Natural, Brown 11R=6,600원	사진용지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축제·행사 장비대여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	---

2024 제39회 남원 전국 사진 공모전

사진 예술의 발전과 사진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춘향의 얼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하는 남원전국사진공모전에 전국 사진 동호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마감
2024년도
11월 26일
(소인유효)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 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14" 에 한함 (※ 한국사협 입회점수 인정)
- **출 품 료** 1인당 2만원 - (4점 이내) / 작품집 증정
- **출품요령** 출품표에 제목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꼭) 기입요망
- **접 수 처** (우) 55775 전북 남원시 남문로 446 한국사진작가협 남원지부 (지부장 010-6530-2609, 사무국장 010-6600-6306)
- **심사발표** 한국사협 및 남원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남원지부- <http://cafe.daum.net/photo-nw> **심사발표 : 12월 05일**
- **시상내역**
 - 금 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및 상금 각30만원
 - 동 상 3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 가 작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 장려상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 입선 출품자수의 20% -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장상
- **시상 및 전시** 한국사협 남원지부 홈페이지참조
- **기(유의)타**
 - 1)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한국사협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국사협 입회가 유보됨.
 - 2)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초상권 및 작품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함
 - 3)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함
 - 4) 심사결과 발표 후.금상.은상.동상 입상자는 "16x20"으로 인화한 사진을 10일 이내에 본 지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수상작품의 파일은 발표 후 7일 이내 V2609@hanmail.net 제출바람

